

RR 2011-01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경험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변 기 용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RR 2011-01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경험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변 기 용(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전 재 은(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Jenny Lee(University of Arizona)
연구보조원	이 희 영(고려대학교)
연구보조원	박 해 경(고려대학교)
연구협력관	이 은 선(교육과학기술부)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
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를 밝힙니다.

머 리 말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국가 역량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세계적으로 대학의 국제화 및 고등교육 경쟁력을 위해 여러 정부와 대학 기관들이 힘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도 또한 정부의 Study Korea Project와 대학 기관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 해외로 학생을 유학 보내는 국가로 주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질적 관리의 문제가 대학과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지만 문화적 적응 문제와 같은 주제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대학에서의 학습 및 사회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또한 특정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영어 강의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과 같은 앞으로 대학 국제화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인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경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국제화의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여러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신현석

연구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999년 6,279명에서 2010년 83,842명으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즉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과학기술부, 2009)와 개별 대학기관들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저렴한 유학비용, 경제 성장, 한류 등 다양한 요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2008년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였을 뿐 질적인 성장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피고 지원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인구의 특징 중 하나는 아시아권 학생들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을 반영하듯이 많은 연구들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 문제와 특징, 지원 관리방안에 관하여 논의해왔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피상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고, 학습 및 사회적 경험에 대한 면은 배제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문제에 집중되고 질적 연구방법만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유학생화에 대하여 양적 그리고 질적 방법을 모두 이용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국인 또는 아시아계 유학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한국사회의 차별문제이다. 유학생들이 출신국가와 인종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차별 및 편견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하나의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영어강의이다. 영어강의의 확대 목표 중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는 만큼,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학생과 교수들의 입장에서 영어강의에 대한 장단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영어강의와 의견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대학만의 경쟁력 있는 국제화를 꾀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및 사회적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편견, 친구 관계와 같은 다양한 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이용한 혼합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혼합연구방법론 중에서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수렴평행설계방법을 사용하였다(Creswell & Plano Clark, 2011).

설문조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및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 대학생활 만족도 및 어려움, 교우관계, 차별 및 편견 경험, 학습경험, 한국 및 재학 대학의 추천 여부, 진로 계획 등을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총 425명의 설문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성별을 밝힌 359명 중 남학생은 37.4%(159명), 여학생은 47.1%(200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이를 밝힌 336명 중 중국이 156명

(36.7%)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33명(7.8%)과 말레이시아 18명(4.2%)이 뒤를 이었다. 학위과정별로는 대학원생이 203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88명(25.0%), 정규등록 학부생 85명(24.1%)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면담조사는 20명의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구조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에는 한국과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하여 유학을 오게 된 이유와 지원 절차의 경험, 학업생활과 대학 측으로부터의 언어 지원, 교우관계, 차별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과의 원활한 인터뷰와 충실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중국어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로 수집한 양적자료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 등을 사용하고, 면담조사로 수집한 질적자료는 오픈 코딩으로 코드리스트를 작성한 뒤 연구팀이 함께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유학대상 국가 및 대학의 선택

(1) 유학대상 국가로서 한국의 선택

설문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을 유학대상 국가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어 학습과 그 다음으로 한국문화의 체험이고, 또한 졸업 후 자국이나 외국에서 좀 더 나은 취업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또한 장학금 기회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과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 체험과 외국에서 휴식을 즐기고자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던 반면, 아시아 지역의 유

학생들에게는 한국 대학 졸업 후 고국에서 좋은 취직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저렴한 생활비와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수월한 비자절차가 중요한 이유였던 반면, 단기 과정 유학생들에게는 지리적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고, 학부 과정 유학생들에게는 수월한 비자절차가 중요하였다. 한국의 안전 즉 치안은 아시아권 학생과 학부생이 모두 중요한 이유라고 밝힌 부분이다. 장학금 기회는 대학원생과 기타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조언은 한국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과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위 과정의 종류에 따라 이들이 한국이 유학 목적지로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적으로 친숙하며 유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 등이 한국으로 유학온 중요한 이유들이었다. 특히 일본에 비해 비자 받기가 수월하고 일본어나 영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여 한국으로 유학오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들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양한 이유가 언급되었으나, 대체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지역 출신 및 학부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이유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출신지역과 학위과정에 따라 차별적인 선호이유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 관리에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을 유학 국가로 추천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비용이 생각보다 적지 않고 영어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영어권 국가로 유학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다. 이

는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 국제화를 위해 영어 강의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목적과 효과를 재차 고려하게 한다. 하지만 영어 강의를 필요로 하고 이에 만족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으므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강의를 어떠한 학위 과정과 전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또 출신지역과 필요 등 어떠한 외국인 유학생을 목표로 삼고 운영할 것인지를 확실히 되짚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 대학 기관의 선택

설문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고려대학교 재학생을 통해서거나 인터넷과 안내책자와 같은 광고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로는 영어 강의, 보다 나은 고등교육의 질 그리고 재정지원 약속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의 유학생들에게 영어강의는 다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 또한 다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교사 및 진학상담가의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한국에서 어느 대학으로 갈 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여겼다. 북미 및 유럽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어느 대학으로 오든지 상관없었다고 한 대답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둘째,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은 영어 강의를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고 한국의 어느 대학으로 가든 한국으로 유학오기를 원했지만, 정규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의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의 질 등이 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다.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에게는 특정 교수나 연구진과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갖거나 수업을 듣는 것과 저렴한 교육비가 중요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어학원 즉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의 경험과 학교 시설 등을 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학습 분위기와 교육과정의 질 그리고 선후배 관계 등을 학교 명성과 국제화와 함께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강의를 개설할 때는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인 교육 프로그램의 양질화를 꾀하며 어학 및 단기 과정에서 그 학교만의 문화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학문적 경험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적 경험은 **설문조사 결과**, 유학 생활에서 사회 생활과 개인적 감정과 같은 어려움들에 비하여 어려움을 더욱 느끼는 부분이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학문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어려움의 정도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러 항목에 걸쳐 학문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도서관과 컴퓨터와 같은 학습관련 자료와 연구 시설 그리고 교수 및 강사의 질 등이 포함되었다. 학문적 어려움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그 중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습관련 자료와 지원 서비스 그리고 교수 및 강사의 질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과 교육비 그리고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북미 및 유럽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은 교육비와 장학금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편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로는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육비와 장학금, 학습지원 서비스, 교수 그리고 교직원의 도움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대체로 낮게 표한 반면,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은 교수와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단기 교환 및 연수 유학생들은 북미 및 유럽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과 함께 교직원의 영어 구사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 및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

중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학문적 경험에 있어 한국어와 영어 강의와 관련된 언어 문제, 학업 경쟁과 성적 스트레스,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시스템 및 시설을 이용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어라는 외국어로 수업을 듣고 학문을 위한 한국어를 사용해야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겪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 영어 강의를 듣는 것도 어렵고 한국 학생과의 경쟁에서도 또 뒤쳐질 수 있다는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목적과 수업 및 수강의 대상에 대해 숙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과의 경쟁에서 실력 차이와 거리감을 느껴 힘들어하고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편견을 받고 중국에서 대학 이전에 배운 교과과정의 차이로 인해 한국 학생에 비해 성적상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토론 및 발표 중심의 수업 방식은 긍정적으로 여겼지만 교수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배려의 부족에 대해 지적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특히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면에 있어서도 단기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개의 외국어로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에 따른 이중의 어려움이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하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3) 사회적 경험

(1) 사회적 경험의 만족도와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적 경험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대학에서의 경험과 친구 및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사교 분위기 등에 가장 만족한 편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일할 기회에 대해서는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보다 그리고 단기과정보다는 정규학위과정의 학생들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한국어 의사소통과 한국 학생과 친구 사귀는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단기 과정의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의 편안함, 학교 캠퍼스에서 환영받는 느낌 그리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사귀는 부분 등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외국인 유학생과 그 중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 안팎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의 경험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2) 교우관계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설문조사 결과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교우관계 비중은 가장 높은 반면 한국 학생의 비율은 가장 낮고, 한국 학생과 친구 사귀기를 가장 희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관계는 고국의 가족 및 친구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학교에 있는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었다.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우관계에 있어 한국 학생과는 친구가 되고 싶어도 거리감을 느끼고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과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와 관

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한국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을 어려워하는 태도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학생들이 다른 서구 혹은 일본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을 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유독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한 점은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

(3) 차별과 편견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 중 동아시아 즉 중국인 유학생과 학부생 그리고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별을 가하는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동료 학생에 의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문제점으로 주목된다. 이는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 또는 서구권에서 온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인터뷰에서 수업 중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중국 혹은 중국인에 대해 비하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언급된 점이다. 이는 교수자가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을 가르칠 때 특정 국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삼가해야하는 인식과 함께 이러한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 자체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육의 질 즉 교수의 강의 능력이나 친절도에 만족감을 표하였는데 위와 같은 교수자의 유학생에 대한 차별언행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수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생활적인 면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치안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반면 숙소 구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 인터뷰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은 각종 행정적인 업무의 처리, 수강신청, 보험 등의 서비스 이용 등에서 시스템 차이에 따른 어려움과 학교의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숙소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언급되었는데, 학교의 기숙사는 교환학생이나 국비유학생에게 배정되고 학교 밖에서 숙소를 구해야 하지만 한국어나 한국 생활이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개 생활비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였고 중국어 과외를 비롯해 음식점과 관리인과 같은 단순 노동 작업도 많이 하는 것을 보인다. 즉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경험 결과부분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생활면에서도 다른 학위과정의 유학생들보다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 이후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고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를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과 고국 보다는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4. 결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경험, 즉 한국 유학 결정 동기, 대학의 선택, 그리고 학문적 경험과 여러 사회적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동기는 출신 지역과 학위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과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 체험과 외국에서의 휴식이라는 이유가 한국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체험 및 한국 관광을 결부시킨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가 유치 전략으로 주효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중 과반수가 학부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수월한 비자 절차가 한국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체감하는 비용은 저렴하지 않다고 밝혀 장학금, 기숙사와 같은 방안 외에도 교내 아르바이트 및 관련 인턴십 기회의 제공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안내 등 외국인 유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전반적으로 한국 유학 후 고국이나 외국에서 좀 더 나은 취직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한국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고 아시아 지역의 학생은 특히 졸업 후 고국에서의 좋은 취직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취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홍보와 개발 그리고 인턴십 기회의 제공 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은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충고가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대학 입학 전 대학 부설의 한국어 학습기관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대학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대학 문화를 체험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한 가지 유치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영어 강의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은 한국 유학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고, 영어 강의는 대학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과 학위 과정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영어강의를 대학 선택 시 선호하였던 유학생들은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이었고, 동아시아 지역 유학생들, 즉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 대신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의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과 교육의 질이 대학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오히려 중국인 학부 유학생은 한국어 강의뿐만 아니라 영어 강의를 들어야하는 스트레스를 겪고 한국어로 배우고 싶어 유학왔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강조하니 차라리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국을 거쳐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로 유학 가고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영어 강의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대학의 영어 강의의 대상과 목표를 차별화하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과 함께 영어로 진행되는 일반 대학 수업을 제공하고, 정규 학위과정의 학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목적과 필요 그리고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강의를 함께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학문적 한국어와 영어 학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영어 강의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국내 대학들이 한국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통해 대학 국제화를 꾀하고자 하는 부분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어학원 과정 이수 이후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한국어 학습을 계속할 수 있고 특히 한국어로 학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강의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학부 과정의 학생들의 학문적 경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관리가 시급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습 관련 시설과 교육의 질 등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유독 학부 과정의 유학생들이 학문적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도를 낮게 응답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교육비와 장학금 이외에도 한국어 및 영어 강의의 어려움, 학습 지원 서비스의 부족, 학교 시스템과 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교수의 편견 또는 무관심, 그리고 한국 학생과의 학업 경쟁과 성적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시스템 및 시설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홍보를 강화하고, 신입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강신청을 돕고 맞춤형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입학 때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 지원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와 영어 학습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교과과정을 보충해줄 수 있는 강의 및 튜터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하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교류를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이 교환 학생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과 정규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을 북미 및 유럽지역이나 단기 과정의 유학생들보다 더욱 느끼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학생과의 관계는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참여와 학업에도 기여할 수 있고(Hendrickson, Rosen, & Aune, 2011; Kashima & Loh, 2006; Pritchard & Skinner, 2002; Trice, 2004), 대학에서 동료 학생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가치관, 지적능력, 학업과 같은 영역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관계 형성은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의 문화적 능력과 학습 능력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습득, 강의, 학교 시설 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차별과 편견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수자가 교실에서 특정 국가 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와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다는 부분에 대

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 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유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학생들과 한 수업에서 가르친다는 상황이 아직 생소하므로 이를 위한 교수법과 교실 내 가능한 갈등상황에 적절한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교수자에게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류 및 이문화능력의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수업의 방식도 될 수 있고 기존의 도우미 형식의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확장시키고 학생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들은 성공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양적 팽창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양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을 향상시키고 장려하는 노력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 기관의 외국인 유치 노력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한국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한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도 학업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며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도 차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질적 성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II.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6
1.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6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9
3. 선행연구 분석	12
III. 연구대상 및 방법	21
1. 사례연구 대학의 특징	21
2. 연구방법, 대상 및 절차	23
IV.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결과	32
1. 유학대상 국가 및 대학의 선택	32
2. 학문적 경험 측면	41
3. 사회적 경험 측면	48
V. 외국인 유학생 면담조사 결과	61
1. 유학대상 국가 및 대학의 선택	61
2. 학문적 경험 측면	68
3. 사회적 경험 측면	78
VI. 결론: 시사점 및 제언	92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시사점	92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제언	104

참고문헌	109
------------	-----

<부록 1> 설문지(영문)	117
----------------------	-----

<부록 2> 설문지(중문)	133
----------------------	-----

<부록 3> 인터뷰 질문지(영문)	148
--------------------------	-----

<부록 4> 인터뷰 질문지(중문)	151
--------------------------	-----

표 차 례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2001-2010	10
<표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주요 국가별 현황: 2010년도	10
<표 3> 국내 출신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 2010년도	11
<표 4> 중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분포: 2010년도	11
<표 5> 고려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통계: 학위 과정별	22
<표 6> 고려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통계: 출신 지역별	23
<표 7> 연도별 국내 중국인 유학생	23
<표 8> 외국인 유학생 수: 출신 지역별	25
<표 9> 외국인 유학생 수: 학위과정별	26
<표 10> 외국인 유학생 수: 출신지역과 학위과정별	26
<표 11> 외국인 유학생 수: 전공별	26
<표 12> 전공 분류의 예	27
<표 1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	28
<표 14> 외국인 유학생의 영어 수준	28
<표 15> 인터뷰 참여자	29
<표 16>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들: 개인적 이유	32
<표 17>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출신 지역별	34
<표 18>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학위 과정별	34
<표 19>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들: 한국 관련	35
<표 20>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36
<표 21>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36
<표 22> 고려대학교를 선택할 때 이용한 정보 수집 방법	37
<표 23>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38
<표 24>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39
<표 25>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40

<표 26> 유학 생활의 어려움: 학업생활, 사회 생활, 개인적 감정	41
<표 27> 유학 생활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42
<표 28>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어려움	42
<표 29>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43
<표 30>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43
<표 31> 고려대학교에서의 학문적 경험 만족도	44
<표 32> 학문적 경험의 만족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45
<표 33> 학문적 경험의 만족도: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46
<표 34>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가 생각하는 본인의 능력 향상 정도	47
<표 35> 한국 유학의 고국에서의 장래 직업 또는 교육을 위한 유용성 여부 ..	48
<표 36> 유학 생활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48
<표 37> 유학 생활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49
<표 38>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어려움	49
<표 39>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어려움: 출신 지역별	50
<표 40>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어려움: 학위 과정별	51
<표 41>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만족도	51
<표 42>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만족도: 출신 지역별	52
<표 43>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만족도: 학위 과정별	52
<표 44> 현재 교우관계: 국적별	53
<표 45> 희망하는 교우관계: 국적별	53
<표 46> 도움을 받는 대상	54
<표 47> 한국학생과 비교하여 다음의 상대에게서 또는 및 장소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55
<표 48>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하여 다음의 상대에게서 또는 장소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55
<표 49>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경험	56

<표 50> 생활면에서의 어려움	57
<표 51> 생활면에서의 만족도	57
<표 52>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면에서의 만족도: 출신 지역별	58
<표 53>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면에서의 만족도: 학위 과정별	58
<표 54>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면에서의 어려움: 학위 과정별	58
<표 55>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래 학업 계획	59
<표 56>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래 직업 계획	60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10
[그림 2] 국내 외국인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2004-2010년도	1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999년 6,279명에서 2010년 83,842명으로 10배 이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인구의 증가율은 세계적으로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OECD, 2010).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Study Korea Project와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한 다양한 노력, 그리고 1997년부터 대학에서 자율적 외국인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저렴한 유학 비용, 경제 성장, 한류 등 다양한 요소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루게 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안영진, 2009).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증가라는 성공의 이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다 넓게는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정윤(2009)에 따르면 199개 4년제 대학 가운데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수가 50명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대학은 총 25개 대학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중 대다수 대학(167개교)에서는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들 중 졸업장을 취득한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간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후속되는 교육단계에서의 질적 관리에는 이제까지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의 대량 유치에는 성공하였으나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현재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및 재정여건이 상

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소재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한 대다수의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 중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기준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한 성균관대(654명), 한양대(634명), 중앙대(492명), 경희대(422명), 연세대(284명), 고려대(195명), 이화여대(99명)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학생 수 대비 졸업생 비율이 대부분 10 대 1미만으로 나타나,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대비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유학생의 질적 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교육과학기술부, 2011b)”를 2011년부터 도입하는 등 이제까지 유학생 유치 확대 일변도에서 질적 측면에서의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관심을 상당부분 전환하고 있다. 즉, 일부 부실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교육목적이 아니라 부실한 대학재정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의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및 관리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제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주로 이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피상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예:김우중, 2011; 박혜숙, 2009; 안영진, 2009 등)이었고,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소수의 연구들(예:권양이, 2008; 하정희, 2008 등)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문제라는 한정된 영역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편적·피상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모든 과정을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심층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1) 외국인

유학생들이 왜 한국을 유학국가로 선택하는가, (2)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특정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한국대학에 온 후 학습경험과 사회적 경험의 측면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만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방법과 심층 인터뷰 등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은 각각 연구방법으로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동원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학습경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및 사회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동시에 학습 경험, 차별, 교우 관계와 같은 다양한 면에 대한 보다 심층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방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와 학습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정부 혹은 대학차원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대학 국제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고려대학교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교육중심(regional education hub)이 되

기를 추구해 나가는 정책적 상황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등 전통적 고등교육 강국이나 지역 내 고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일본, 호주 등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유학 대상 국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을 유학대상 국가로 선택한 학생들이 특정 대학(본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통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온 목적인 학업수행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학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실태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즉,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문적 만족도와 어려움, 그리고 교우관계와 차별 문제 그리고 생활적인 면을 포함한 사회적 경험에서의 만족도와 어려움 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에 있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영어강의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요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대상 국가 및 기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학문적·사회적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강의의 확대 목표 중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는 만큼, 한국학생과 교수들의 입장에서 영어강의에 대한 장단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영어강의와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향후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구안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국인 또는 아시아계 유학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차별문제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신국가와 인종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차별 및 편견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경험 실태 파악과 관련한 이러한 차별 문제를 중요한 포커스로 삼아 중점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과 학위 과정별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

적·사회적 경험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문 조사의 경우 이러한 변수에 따른 각각의 그룹별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결과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와 국내 대학에서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 혹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및 후속적인 유학생 관리방안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향후 정부 혹은 대학 차원에서의 보다 폭넓은 대학 국제화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1.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왔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부문 대외개방 계획’(1996년), ‘국제대학원 지원’(1997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2001년), ‘우수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2002년)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이병식, 2005), 2000년대 중반부터 ‘Study Korea 프로젝트(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2004년), ‘Campus Asia’ 사업(2009년), ‘Global Korea Scholarship(한국 정부 국제 장학프로그램, 이하 GKS)’ 프로그램(2009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2011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중 가장 최근에 시행 중인 Study Korea 프로젝트, GKS 프로그램, Campus Asia 프로젝트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udy Korea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1단계 프로젝트와 2008년 이후 제2단계 프로젝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 Study Korea 프로젝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50,000명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유학 홍보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대학의 수확환경 개선 등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1년 4,682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7년 49,720명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제1단계 Study Korea 프로젝트의 목표가 조기달성 되면서, 2008년 제2단계 Study Korea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제2단계 프로젝트는 2012년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0,000명의 유치와 동시에 1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당시 제1단계 Study Korea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문제점

은 세 가지로 첫째, 비록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한국의 유학생 유치율은 최하위권이었다는 점,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적이 중국 등 일부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점, 셋째,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단계 Study Korea 프로젝트는 첫째, 유치국가 다변화 및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둘째, 외국인 유학생 수학·생활환경 등 유치여건 개선, 취업 등 졸업 후 지원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Byun & Kim, 2010).

다음으로 Campus Asia 사업은 유럽 대학 간 교육 협력의 확대에 결정적 기여를 한 에라스무스와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사업이다. Campus Asia 사업은 이제까지 각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환학생제도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한·중·일 3국의 합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주역이 될 한·중·일 대학(원)의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제, 공동석사학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시아 차원의 고등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Campus Asia 사업이 추구하는 바는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서와 같이 ‘학사·석사·박사’의 세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각 국의 학위 또는 자격체계를 표준화하고 공동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제1단계(~2012)에서는 사업체계 및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제2단계(2013~2015)에서는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완료단계인 제3단계(2016~)에서는 아시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최상덕·최현영, 2009). 2011년 현재 한국의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KAIST 등 8개 대학, 중국의 북경대, 칭화대 등 8개 대학과 일본의 동경대, 고베대, 큐슈대 등 10개 대학이 시범사업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제1단계 사업 시행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중에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GKS는 기존의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과 ‘한국인 해외장학 프로그램’

을 확대하는 한편 ‘교환학생 및 자비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GKS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장기학위 프로그램, 단기지원 프로그램, 현직리더 초청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장기학위 프로그램은 기존의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기지원 프로그램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ABC(Argentina, Brazil, Chile) 등 회원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 자비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교환 학생 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직리더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 발전 경험 등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고위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원, 교수 등과 같은 현직 지도자층의 한국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GKS에 관한 정책결정은 ‘GKS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GKS의 실제 집행 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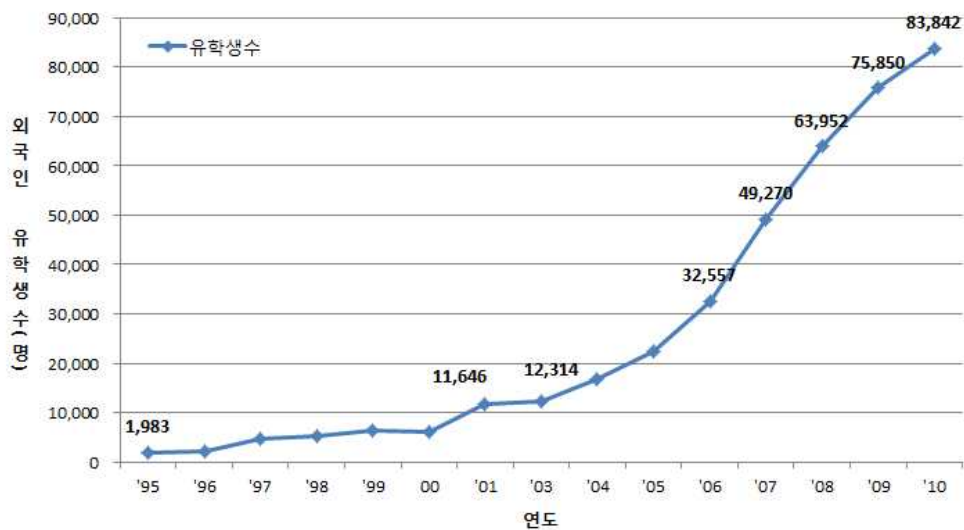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정책의 목적은 첫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 제시, 둘째, 유치·관리역량 우수 대학을 발굴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셋째, 대학의 유학생 관리의 질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세 가지 단계의 평가를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심사로,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정량지표를 평가하여 현장평가 대상의 대학과 실태조사 후보대학을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심사로, 현장평가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해당 단계는 인증평가단(또는 실태조사단)과 법무부가 함께 진행하며, 제출서류 검토

및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세 단계에 걸친 평가가 종료되어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1차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한 평가기준 미달이 발견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0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5년 1,983명에서 2001년 11,646명으로 6년 만에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매년 약 10,000여 명 이상 증가하면서, 2007년에는 49,270명, 그리고 2010년에는 83,842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 2012년에는 제2단계 Study Korea 프로젝트의 목표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가 완만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Study Korea 프로젝트 과정 중 지적했던 문제점과 같이 특정 지역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아시아권의 학생들은 71,838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 3>를 보면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이 68.9%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1, 2004-2010)

주) 2002년은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2001-2010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유학생 수(명)	11,646	—*	12,314	16,832	22,526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유학생 수(명)	32,557	49,270	63,592	75,850	83,842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과학기술부 (2010); *자료없음

<표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주요 국가별 현황: 2010년도

국 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명)	57,783	3,876	2,193	1,914	1,419	3,333	13,324	83,842
비율(%)	68.9	4.6	2.6	2.3	1.7	4.0	15.9	10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학하는 교육과정도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3>를 보면, 2010년도 국내 유학생의 약 50.2%가 인문사회과정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약 20.4%가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학, 의학, 예체능 분야로 유학을 온 학생은 매우 적었는데, 공학 분야에 유학 온 학생은 2010년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약 11%, 의학 분야에 유학 온 학생은 2010년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약 0.7%, 예체능 분야로 유학을 온 학생은 2010년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약 4.7%뿐이었다.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학부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국내 출신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명): 2010년도

지 역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합 계
어학연수	15,372	162	64	680	152	634	17,064
인문사회	39,392	433	118	1,180	227	699	42,049
과 정 별	공학계	112	14	100	57	106	9,091
	자연 과학계	47	9	125	14	41	4,312
	예체능계	5	11	110	10	47	3,961
	의학계	11	6	91	3	6	587
기타연수	48	809	1,154	16	4,693	58	6,778
합 계	71,838	1,579	1,376	2,302	5,156	1,591	83,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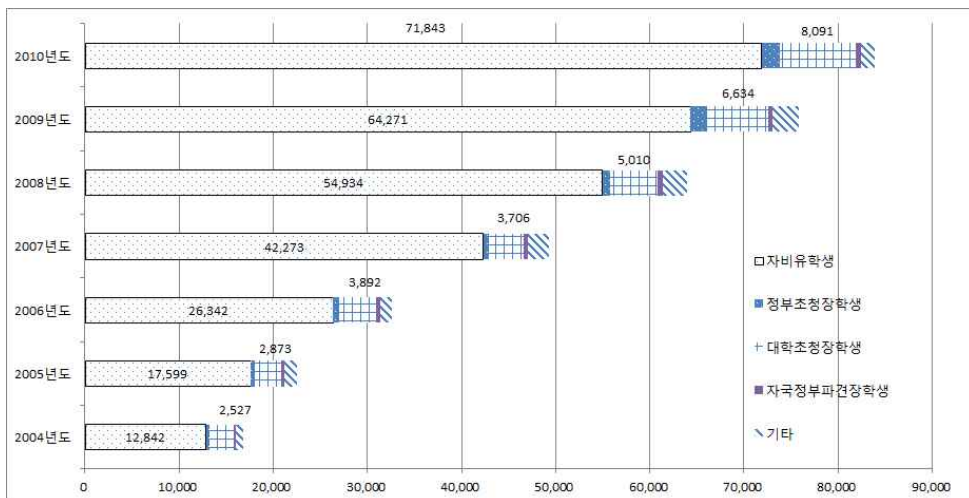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

<표 4> 중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분포: 2010년도

학위과정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	기타	계
중국인 유학생 수(명)	10,432	36,047	8,327	2,977	57,783
%	18.1	62.4	14.4	5.2	10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

마지막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형태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자비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자비 유학생은 71,843명으로 2010년 외국인 유학생의 약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초청장학생이 6,634명으로 2010년 외국인 유학생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그림 2]에서 2009년과 2010년도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2009년의 경우 약 2.1%, 2010년은 약 2.3%로 자비유학생이나 대학초청장학생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국내 외국인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2004-2010년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2001, 2004-2010)

3. 선행연구 분석

1) 한국 및 대학 선택 요인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 대상 국가로 한국 및 한국의 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소수의 연구들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선택 이유로는 학위 취득,

한국어 학습,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 및 좋은 공부 환경, 유학 이후 취업에 유리한 점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기대하는 등의 개인 경력 제고의 목적 등이 있었다. 국내 대학 선택 이유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학의 명성, 양질의 교육 제공 여부, 친구의 재학 등이 대학 선택의 이유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의 목적을 조사하였지만 각 연구별로 유학 전, 중, 후의 단계별 의사결정구조를 조사하거나(안영진, 2009), 중국의 한족과 조선족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박우, 2009) 살펴보기도 하였다.

안영진(2009)의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목적 및 의사결정구조에 관하여 유학 이전 단계, 선정, 향후 진로라는 단계별로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 온 목적으로 유학 후 능력 향상, 학문적 욕구의 충족, 유학 이후 취업에 유리,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대 등을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서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양질의 교육, 우수한 교육시설, 대학의 명성 혹은 지명도, 친구의 재학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중 설문조사 지역, 유학생의 국적과 입국연도, 그리고 교육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대학의 명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 이유였고, 중국 국적의 유학생은 양질의 교육, 일본 국적의 유학생은 친구의 재학이, 그리고 미국 국적의 유학생은 대학의 명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대학원 과정생들은 대학의 명성과 우수한 교육시설, 학부과정은 우수한 교육과 친구의 재학, 어학연수생들은 우수한 교육을 가장 많은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 유학, 유학 후 3단계로 나누어 더욱 자세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 국내 유학생의 현황 파악에 중요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였다. 즉, 유학 이전 단계의 분석에서는 유학의 거시적 배경과 유학생의 사회 경제적 환경, 유학의 개인적 결정 요인과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유학 단계에서의 대학 선정 요인 및 유학 이후 향후 진로 및 이동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박우(2009)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에서 온 한족 및 조선족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원인, 졸업 후 계획, 한국에서의 경제, 사회 생활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 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한족과 조선족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는 비슷했다. 그러나 한족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있어서 조선족 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한국에 남아있으려는 인식이 강했으며, 한족 유학생에 비해 경제활동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생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에 비해 한국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유학 중 의식주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유학생의 경우 한족, 조선족 유학생 모두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그리고 김우중(2011)의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유학의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과 높은 교육수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단순히 학위취득만을 목적으로 왔다는 응답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응답자의 답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한국유학 목적은 한국 내 취업이었다.

2) 학습경험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이나 생활적응에 대해서는 많이 다룬 반면, 학습경험에 중점을 둔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 주휘정(2010)은 교실 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경험을 기술하였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는 한국인 학생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 한국인 학생들의 부족한 영어능력, 소극적 수업참여 태도로 인해 외국인 학생들이 양질의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자는 이와 같은 결

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교육에 이문화 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영어강의 시행을 위한 질적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고, 대학 내의 이문화 이해와 수용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문화 이해 및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은 캠퍼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국 사회 전체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습환경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직접적 학습경험 뿐 아니라 교실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 관련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김태자 외(2008)와 이현실·황동렬(2007)은 영어 및 한국어로 실시한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고, 조용완·이수상(2010)과 배현숙(2007)은 각각 정보 문식성(information literacy)과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각각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증진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3) 사회문화 및 대학생활 적응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연구한 논문 중 많은 수의 연구가 유학생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화 적응(경수영·장수미, 2010; 나임순, 2006; 송원영·리난, 2008; 이수범·김동우, 2009; 이익수·지봉구, 2006; 임지혜·최정화, 2009; 조창환·성윤희, 2010) 또는 대학생활 적응(강이화 외, 2008; 권양이, 2008; 김대현 외, 2007; 김선남, 2007a, 2007b; 김영경, 2009; 박은미 외, 2010; 임춘희, 2009; 정은이, 2008; 하정희, 2008)를 주로 연구하였다. 캠퍼스 안팎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을 연구하고 그 해결 방안 및 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임순(2006)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향수병으로 인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한국어 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생활 스트레스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수범·김동우(2009)도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조창환·성윤희(2010)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미치는 요인이 한국어 능력과 한국인과의 상호교류 및 모국어 사용, 모국미디어 사용, 모국 집단과의 상호교류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음은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심리 혹은 스트레스와 문화적응의 관계를 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충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민선 외(2010)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밝혀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나동석·강석화(2010)도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경수영·장수미(2010)는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 및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 적응하는 일반적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에서의 적응이라는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유학의 주된 목적을 감안할 때 외국인 유학생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중요한 주제라 하겠다. 적응과 관련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선행 연구 중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논문은 대학생활 적응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스트레스로 크게 나뉘고 있다.

먼저 대학생활 적응 요인으로 김선남(2007a, 2007b)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특수요인인 문화적 이질성 및 언어장벽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어 등의 완충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권양이(2008)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이 학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한국어 및 영어능력, 편견, 재정적 압박감임을 밝히고 있으며, 김영경(2009)은 국내 중국 및 일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장벽 해결, 친구 사귀기, 적극적 학습 활동, 맞춤식 지도, 경제적지지, 문화이해, 대처능력에 대한 요구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는 연구로는 하정희(2008)는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학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학생활을 통하여 소외감이나 무시 받는 감정과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춘희(2009)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적응을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육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논문은 이상과 같이 크게 문화 적응과 대학생활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타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도적 혹은 사회적 해결 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차별 경험

이 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신 국가와 인종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 및 편견 시선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노경란·방희정 2008; 임도경·김창숙 2011; 황미애, 2009). 김수아·김태호(2011)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지각과 차별대처방식에 대해 연구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 주목한 바 있으며, 김영경(2009)은 일본인 유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요구분석에 관해 분석하면서 유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요구 항목들은 그들이 느끼는 차별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차별감의 차이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도

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을 연구한 하정희(2008)의 연구와 임춘희(2009)의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및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감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끔 도와준다. 하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이나 교수님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할 경우 거부감을 느끼며, 한국인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관심을 적게 가지거나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중국에 있는지를 질문하며 중국에 대한 무지로 중국인 학생들이 무시당한다는 감정을 받게 한 예들이 거론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인터뷰에서 교수가 수업에서 중국의 70-80년대 모습만을 알고 중국이 낙후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토로하였다. 임춘희(2009)의 연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교내·외에서 느끼는 차별을 밝히고 있는데, 예로 교내에서는 한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조차 중국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학생이나 교수가 중국인과 중국 물건을 더럽다거나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교내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또한 성적 처리 시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낮은 성적을 받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밖에서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것에서 차별감을 느끼고 있었다.

5) 유학 후 만족도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대체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한 후 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역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거나(박혜숙, 2009), 중국 유학생의 대학도서관 포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연구(이수상·위성광, 2007) 등 유학생 집단만을 연구하거나 한국인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과 비교하는 연구(김홍렬, 2011; 박혜숙, 2010) 등이 있었

다.

조혁수·전경태(2009)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를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다수가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외생활 만족도에 비해 교내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는데,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교육시설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언어능력의 한계로 인해 수업 및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중(2011)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한국어 학습이나 저렴한 유학비용 외에 일본보다 매력이 없는 유학지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한국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언어문제, 수업의 난이도, 학우와의 관계를 유학생회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으며, 양국 외국인 유학생 모두 현지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프로그램 및 시스템

이 밖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도 다양한 주제들에 걸쳐 수행되었다. 그 중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거시적 프로그램 및 전반적 정책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장귀경 외(2010), 주현준(2007), 그리고 조혁수·전경태(2009)와 같이 직접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두 번째는 김선정 외(2006)와 교육과학기술부(2009)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채재은(2010)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비교하여 한국 유학생 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들이 잘 반영된 전북대학교(2009)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종합계획’에서 학교 차원

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해당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겪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어 학습 지원, 장학금 제도, 외국인 학생 모임, 한국문화체험, 건강 및 상해보험, 외국어 공지 서비스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 지원하는 내용을 부서별, 사업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한국어 프로그램 및 언어 외적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유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학문적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주목을 끈다(박기영, 2008; 이해영, 2001; 최윤곤, 2003).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사례연구 대학의 특징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국가 및 대학 선택의 이유와 그 이후에 한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학문적·사회적 경험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려대학교를 분석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고려대학교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들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연구를 위한 협조가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2000년대 초 이후 해당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영어강의의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국제화 정책을 추진해 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예컨대 고려대학교는 해외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학생 및 교수의 해외교류 이외에도 영어강의의 의무화와 국제하계대학의 확대 등 대학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Byun et al., 2011; Jon, 2009).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외국의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고려대학교는 1987년 ISEP에 가입하면서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를 증진코자 하였고, 이후 고려대학교와 직접 협정을 맺은 학교에는 교환학생을,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으며 ISEP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방문학생을 보내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의 입학 유도·촉진·권장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글로벌 KU 장학금(Global KU scholarship), 유니버시티스 21 장학금(Universitas 21 scholarship) 및 APRU 장학금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기 프로그램으로서 국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저명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국내외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Campus)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규 학위과정 외에 한국어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 1급에서 6급까지 과정을 운영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국내 학생들 간의 교류 증진 및 국제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려대학교는 200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영어강의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2003년 이후 임용된 모든 교수들이 원칙적으로 영어(외국어)로만 강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영어강의를 최소한 5과목 이상 듣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Byun et. al., 2011). 이러한 적극적인 외국인 학생 교류 및 학내 국제화 정책에 힘입어 고려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단기유학생의 경우 2004년 306명에서 2010년 2,082명으로 증가하였고, 정규입학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총 2,113명에서 2010년 총 3,038명으로 증가하였다(<표 5>참조).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증가세도 가장 눈에 띈다(<표 6> 참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할 중국인 유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여 2007년 총 198명이었던 수가 2010년에는 총 473명이 되었고, 2010년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9.5%이다(<표 7>참조).

<표 5> 고려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통계(명): 학위 과정별

	2007	2008	2009	2010
단기유학생*	1,702	1,998	1,697	2,082
학부**	154	184	242	279
대학원**	257	400	628	677
총 학생 수	2,113	2,582	2,567	3,038

*교환학생과 국제하계대학 참가 학생만 포함

**학위과정 학생만 포함

출처: 고려대학교 국제처 (2010)

<표 6> 고려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통계(명): 출신 지역별

	학부				대학원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북미	2	2	4	5	2	5	14	16
아시아	143	168	213	245	237	340	542	598
아프리카	3	3	5	8	1	14	18	11
유럽	6	11	18	19	13	31	46	49
중남미	0	0	2	2	4	9	8	3

*정규학위과정 학생만 포함

출처: 고려대학교 국제처(2010)

<표 7> 연도별 국내 중국인 유학생*

	2007	2008	2009	2010
학부	50	59	89	121
대학원	148	205	317	352
총 학생 수	198	264	406	473

*학위과정 학생만 포함

출처: 고려대학교 국제처(2010)

2. 연구방법,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사용하였다(Creswell & Plano Clark, 2011). 혼합연구방법은 양적 또는 질적 접근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구문제에 보다 포괄적인 연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 가운데 수렴평행설계(Convergent Parallel Design)라는 연구설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설계방법은 양적접근법과 질적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시간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얻은 결과와 질적 방법을 통해 발견한 점들을 직접적으로

비교, 대조하며 연구결과를 확증, 타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적연구(설문조사)와 질적연구(인터뷰 조사)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대상,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해보기로 한다.

1) 양적연구: 설문조사

설문조사 참가자 모집은 고려대학교 국제처의 도움을 받아 2010년 2학기에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메일로 연락가능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알림 이메일을 공지하였다. 단, 국제하계캠퍼스와 한국어학당 연수생과 같이 한 달 정도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연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1학기 이상 교환방문 학생 또는 정규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도구는 Cantwell 외(2009)에서 멕시코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다. 수정된 설문도구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재차 수정되었고, 영어 설문지 외에 중국어로의 번역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영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한 중국 및 한국인 대학원생의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5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과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대학 생활 및 한국 생활의 만족도와 어려움, 교우관계, 차별문제, 학습성과, 졸업 후 계획, 그리고 개인 배경 정보(성별, 출신 국가, 전공, 한국어 및 영어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해외 유학 경험 등) 등에 대한 질문들을 상황에 따라 4점(한국 및 대학기관 선택의 요인의 중요도 등) 혹은 5점(만족도 및 어려움의 정도를 묻는 문항 등)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2010년 2학기에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이메일로 연락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총 1,42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485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34.1%의 응답률을 보였다. 앞서 말했듯이 응답자인 외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언어로 택하게끔 하였고, 이에 따라 169명(약 36%)의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어 설문

지를 통해 응답하였다. 이 중 60명의 학생은 데이터 선별(data screening)에서 첫 설문문항 1,2개를 제외하고 모두 결측치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되었다. 결측값 분석(Missing Value Analysis) 결과 결측의 유형(missing pattern)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최종 분석에는 총 425명의 설문응답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성별을 밝힌 359명 가운데 37.4%(159명)은 남학생, 47.1%(200명)은 여학생이었고, 출신 국가는 이를 밝힌 336명 중 중국이 156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 지역별로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이 178명(53.6%),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이 50명(15.1%),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또는 유럽 출신이 94명(28.3%) 등이었다(<표 8>참조)¹⁾.

<표 8> 외국인 유학생 수: 출신 지역별

	동아시아	기타 아시아	북미/유럽	기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명)	178	50	94	10	332
%	53.6	15.1	28.3	3.0	100

무응답(93명)

학위과정별로는 대학원생이 48.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표 9>참조). 이는 설문 참여자를 모집할 때 국제하계대학과 한국어학당 참가학생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기 방문교환학생들과 정규 학부 및 대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 10>과 비율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하계대학과 한국어학당 연수생의 경우 보통 3주 정도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관계로 1학기 이상 재학하는 방문학생이나 정규입학생과는 경험이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설문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각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나라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에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기타 아시아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북미 및 유럽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기타에는 멕시코, 케냐, 피지 등이 포함되었다.

<표 9> 외국인 유학생 수: 학위과정별

	단기 교환 및 연수	학부	대학원	기타	전체
학위 과정	88	85	172	7	352
%	25.0	24.1	48.9	2.0	100

무응답(73명)

흥미로운 점은 아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과 같은 학위 과정, 그 중 대학원 과정에 특히 집중되어 있고,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의 경우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외국인 유학생 수: 출신지역과 학위과정별

	동아시아	기타 아시아	북미/유럽	기타	전체
단기 교환 및 연수	33	2	44	2	81
학부	53	15	11	2	81
대학원	88	33	34	5	160
기타	2	0	3	1	6
전체	176	50	92	10	328

전공별로는 과학 계열(24.3%)과 경영 계열(22.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과학 계열(18.6%)과 국제학 관련 전공(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표 11> 외국인 유학생 수: 전공별

전공분류 및 계열	수(명)	%
국어국문/한국학	26	7.8
외국어	30	9.0
인문학	6	1.8
사회과학	62	18.6
경영학	76	22.8
국제학	38	11.4
과학	81	24.3
한국어프로그램/ 교환학생	9	2.7
없음	6	1.8
합계	334	100.0

위의 <표 11>에서 각 전공 분류 및 계열로 분류된 전공들은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 전공 분류의 예

전공분류 및 계열	전공명
국어국문/한국학	국어국문학, 국어학, 한국현대문학, 북한학, 한국문화및교육학 등
외국어	영어교육, 언어학, 일본어, 중국어, 동아시아어학, 통사론, 기호학 등
인문학	문화학, 비교문학, 미술, 고고학 등
사회과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법학, 언론학, 정보통계학 등등
경영학	경영학, 재정학, 마케팅, MBA, e-commerce, 식품자원경제학 등
국제학	국제학, 국제관계,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 무역, 국제경제 등
과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건축학, 정보통신, 생명과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의학, 생물학, 환경생태공학, 컴퓨터공학 등
한국어프로그램/ 교환학생	교환학생, 언어프로그램, 어학원 등등
없음	해당안됨, 전공없음 등

설문조사 참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와 영어 수준은 다음의 <표 13>와 <표 14>와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 중 47.8%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독해, 작문, 말하기가 가능했고, 36.6%는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64.9%가 영어로 능숙하게 독해, 작문 그리고 말하기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29.2%는 기본적인 영어 표현만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어로 몇 마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답한 외국인 유학생은 15.6%이고, 영어로 몇 마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답한 외국인 유학생은 5.8%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²⁾

	초급	중급	고급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명)	56	171	131	358
%	15.6	47.8	36.6	100

무응답(67명)

<표 14> 외국인 유학생의 영어 수준³⁾

	초급	중급	고급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명)	21	105	233	359
%	5.8	29.2	64.9	100

무응답(66명)

통계 분석에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2) 초급: 약간의 문장 정도만 구사(Only a few phrases), 중급: 기초 한국어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가능 (Read, write and speak basic Korean), 고급: 고급 한국어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가능 (Read, write and speak advanced Korean)

3) 초급: 약간의 문장 정도만 구사, 중급: 기초 영어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가능, 고급: 고급 영어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가능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및 학위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의 결과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Games-Howell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질적연구: 인터뷰 조사

인터뷰 조사의 경우 중국인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질적 연구로서 다양한 국가보다는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 또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인구 중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표 2>와 <표 8>의 기술 참조),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들도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인터뷰 참여 학생의 모집은 고려대학교 중국인유학생회 게시판에 공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뷰 참여 유학생들로부터 다음 인터뷰에 참여할 학생을 소개 받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인터뷰 조사에는 총 20명의 중국인 유학생 학부생이 참가하였고, 남학생 8명과 여학생 12명,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4명, 사회계열 11명, 그리고 이공계 5명이 면접에 응하였다. 학년별로는 5학기 이상 즉 3학년 이상이 11명, 4학기 내지 2학년 이하는 9명이었다(<표 15> 참조).

<표 15> 인터뷰 참여자

ID	성별	학기	계열	학위과정	한국어	영어	중국최종학력
1	남	9	인문	학사	5-6급	초급	고등학교
2	여	4	사회	학사	5-6급	중급	대학교
3	남	5	공학	학사	5-6급	초급	고등학교
4	여	3	공학	학사	5-6급	초급	고등학교
5	남	3	인문	학사	5-6급	고급	고등학교
6	남	5	사회	학사	5-6급	중급	고등학교
7	남	8	공학	학사	5-6급	고급	고등학교

8	여	4	사회	학사	5-6급	중급	대학교
9	남	9	공학	학사	3-4급	중급	고등학교
10	남	2	인문	학사	3-4급	중급	고등학교
11	여	2	사회	학사	4급*	중급	대학교
12	여	5	사회	학사	5-6급	고급	고등학교
13	여	1	사회	학사	3-4급	고급	고등학교
14	여	5	사회	학사	5-6급	중급	고등학교
15	여	2	사회	학사	5급*	중급	고등학교
16	여	6	사회	학사	5-6급	고급	고등학교
17	여	6	인문	학사	5-6급	중급	전문대
18	여	3	사회	학사	5-6급	중급	고등학교
19	남	5	공학	학사	5-6급	중급	고등학교
20	여	6	사회	학사	5-6급	중급	고등학교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교육심리 상담 전공의 한국계 중국인 석사학위 연구자가 인터뷰를 담당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어로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언어의 제약 없이 좀 더 자유롭게 본인들의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한국인 연구자에게 응답할 경우 밝히기 불편하거나 발언하기 주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질문의 내용에는 한국과 고려대학교를 선택하여 유학을 오게 된 이유와 지원 절차, 고려대학교의 장점과 추천 여부 및 이유, 고려대학교에서의 학업생활, 언어지원, 교우관계, 차별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의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되었다. 인터뷰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었고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된 자료는 인터뷰를 담당한 연구자가 중국어로 전사한 뒤,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학생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을 담당한 학생들은 중국에서의 오랜 거주와 교육경험으로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번역을 진행하였고, 인터뷰 담당자와의 확인 작업도 병행하여 번역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분량은 한 명 당 A4 용지 6쪽에서 12쪽이었고 전체 분량은 154쪽이었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귀납적으로 오픈 코딩을 통해 코드리스트를 작성한 뒤 연역적으로 귀납적 분석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Patton, 2002). 인터뷰 분석에는 총 4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각자 인터뷰 자료를 읽고 코드리스트를 생성하여 회의를 통해 완성한 후, 이 코드리스트를 바탕으로 각자 할당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고 다시 회의를 통해 수정·추가한 코드에 대해 논의하고 코딩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는 Nvivo 9라는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양적결과와 질적결과는 4장과 5장에서 각각 제시한 후 6장에서 종합적 논의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V.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결과

1. 유학대상 국가 및 대학의 선택

1) 유학 대상 국가로서 한국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설문지에서 한국 이외의 다른 해외 대학에 진학할 것을 고려하거나 지원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 420명 중 21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51.2%)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유학 국가로 선호하는 정도가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을 선택한 다양한 이유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우선 개인적인 이유 중 한국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한국어 학습과 실습(M=2.81, SD=1.02)이었고, 그 뒤를 이어 한국문화 체험이라 응답했다(M=2.77, SD=.87). 이외에 졸업 후 자국(M=2.60, SD=.91)이나 외국(M=2.60, SD=.93)에서 좀 더 나은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경우도 한국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이외에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 왔다는 것(M=2.20, SD=.94)도 약간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표 16>). 그러나 이에 비해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조언 등 기타 이유로 한국 유학생활을 선택했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6>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들: 개인적 이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학습과 실습	411	2.81	1.02
한국 문화 체험	412	2.77	.87
졸업 후 더 나은 취직기회(자국에서)	417	2.60	.91
졸업 후 더 나은 취직기회(외국에서)	414	2.60	.93
한국과 관련된 연구 수행	406	2.20	.94
외국에서의 휴식(Vacation away)	410	1.82	.95
친구들의 한국 거주	403	1.80	.97
교사/진학상담가의 조언	409	1.68	.94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Korean heritage)	390	1.62	.95
가족들의 한국 거주	402	1.38	.83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이러한 이유들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과 학위과정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표 17>과 <표 18>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한국 문화 체험이라는 한국 유학 이유는 아시아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보다는 북미 또는 유럽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인 이유였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과 같은 정규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보다는 단기방문 교환학생들이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좀 더 나은 취직 기회를 갖고자 한다는 이유는 아시아권 학생들, 특히 기타 아시아권 학생들이 북미 및 유럽 출신 유학생들보다 졸업 후 본인들의 국가로 돌아가 좋은 취직 기회를 갖기 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외국에 나가 휴식을 즐기고 싶었다는 이유는 위의 <표 15>에서 한국 유학의 이유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였는데, 학위 과정 중 단기 교환 및 연수생들이 중요한 이유라고 꼽았고, 교사 및 진학상담가의 조언이 한국 유학의 중요한 계기였다는 응답은 아시아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반면 북미 및 유럽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았고, 친구들의 한국 거주는 북미 및 유럽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동아시아권 학생들에 비해 더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 및 진학상담가의 조언과 친구의 한국 거주는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였다.

즉, 아시아권 학생들에게는 북미 및 유럽 지역에 비하여 한국 유학 후 고국으로 돌아가 좋은 취직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던 반면에,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 단기 방문 유학생들에게는 각각 아시아권 학생들과 정규 과정 유학생들보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거나 외국에 나가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이유들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과정에 따른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들의 경향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3장의 <표 8>에서 볼 수 있는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 분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으로 유학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 출신 지역이 아시아권 또는 북미 및 유럽 지역이냐에 따라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다를 수 있고 한국이 유학 목

적지로서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출신 지역별

	동아 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졸업 후 더 나은 취직기 회(자국)	2.63	3.10	2.30	13.297***	기>동>북
한국 문화 체험	2.71	2.49	3.07	9.303***	북>동, 북>기
교사/진학상담가의 조언	1.75	1.92	1.40	6.335*	동>북, 아>북
친구들의 한국 거주	1.61	1.76	1.92	3.720*	북>동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p<.05, **p<.01, ***p<.001

<표 18>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학위 과정별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한국 문화 체험	3.14	2.69	2.63	10.994***	단>학, 단>대
외국에서의 휴식 (Vacation away)	2.08	1.93	1.58	9.875***	단>대, 학>대
교사/진학상담가의 조언	1.61	1.51	1.86	4.558*	대>학
친구들의 한국 거주	1.90	1.43	1.82	6.617**	단>학, 대>학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p<.05, **p<.01, ***p<.001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한국에 특수한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질문하였을 때는,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M=2.69, SD=1.10). 그 다음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치안 상태가 좋고(M=2.22, SD=.95) 생활비

가 적게 든다는 점도($M=1.97$, $SD=.92$) 한국을 선택하는데 고려된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비자 신청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 등은 예상 외로 별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이 아니었다.

<표 19>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들: 한국 관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장학금 기회	407	2.69	1.10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치안 상태	407	2.22	.95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410	1.97	.92
지리적으로 가까움	410	1.86	.94
재학 중 취업 기회	404	1.74	.89
상대적으로 수월한 비자 신청 절차	409	1.68	.86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면, 위 <표 19>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장학금 기회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는 기타 아시아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였고, 학위 과정별로는 단기 유학보다는 정규 학위과정의 학생들이, 그리고 정규 학위과정 중에는 학부생보다 대학원생들이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표 20>과 <표 21> 참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한 점은 아시아권 학생들과 학부생들에게 보다 중요한 이유였고, 저렴한 생활비는 동아시아권 학생들에게 보다 중요한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비자절차가 수월하다는 이유들은 위 <표 19>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났다지만, 동아시아권 학생들에게는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보다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근접성은 정규학위과정 학생들보다는 단기 방문 유학생들에게 비자 절차의 수월함은 학부생들에게 중요한 이유였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와 학위 과정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0>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동아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지리적으로 가까움	2.27	1.92	1.11	65.693***	동>기>북
수월한 비자 절차	2.00	1.54	1.15	37.710***	동>기>북
저렴한 생활비	2.17	1.71	1.72	9.765***	동>기, 동>북
치안	2.36	2.50	1.77	16.698***	동>북, 기>북
장학금 기회	2.69	3.37	2.41	13.583***	기>동, 기>북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p<.05, **p<.01, ***p<.001

<표 21>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지리적으로 가까움	1.51	2.12	1.90	9.724***	학>단, 대>단
수월한 비자 절차	1.42	1.99	1.67	9.622***	학>대>단
치안	2.11	2.51	2.17	4.601*	학>단, 학>대
재학 중 취직 기회	1.51	1.85	1.84	4.491*	학>단, 대>단
장학금 기회	2.14	2.52	3.14	30.831***	대>학>단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p<.05, **p<.01, ***p<.001

2) 재학 대학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을 유학 대상 국가로 결정한 후, 한국의 어느 대학을 선택할 지에 대한 결정 과정과 관련된 질

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사례 연구 학교인 고려대학교를 선택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물어본 결과 다음의 <표 22>과 같았다.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은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을 통해서였다($M=2.25$, $SD=1.14$). 그 다음에 많이 쓰인 방식은 인터넷과 안내책자, 광고였으며($M=2.24$, $SD=1.02$), 그 외에도 교환학생 프로그램($M=2.21$, $SD=1.25$)과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친구($M=2.21$, $SD=1.15$)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자국의 유학원이나 국제교육센터를 통해서($M=2.04$, $SD=1.11$) 자료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자국에서 다니고 있던 대학의 교수($M=1.83$, $SD=1.04$)나 자국 내 유학원($M=1.40$, $SD=.82$), 리쿠르팅 기관($M=1.49$, $SD=.76$)은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학경험이 있는 가족 구성원($M=1.35$, $SD=.77$)들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평균이 2.25로 3.00이 넘는 문항은 없다. 학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고려대학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 고려대학교를 선택할 때 이용한 정보 수집 방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117	2.25	1.14
인터넷/안내책자/광고(TV,신문)	114	2.24	1.02
교환학생 프로그램	111	2.21	1.25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친구	113	2.21	1.15
자국의 유학원 또는 국제교육센터	112	2.04	1.11
자국에서 재학한 대학의 교수들	113	1.83	1.04
재학 중인 한국 대학의 교수들	111	1.71	1.00
리쿠르팅 기관(모집행사,박람회)	110	1.49	.76
자국의 유학원	112	1.40	.82
가족 중 유학경험자	112	1.35	.77
고등학교의 진학상담사와 교사	113	1.25	.58

1=전혀; 2=약간; 3=꽤; 4=많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다는 것이었고(M=2.69, SD=1.05) 그 다음으로는 자국보다 고등교육의 질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M=2.49, SD=1.12)와 재정지원 약속(M=2.47, SD=1.13)도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표 23> 참조). 이 외에도 캠퍼스 내 인종·문화의 다양성(M=2.20, SD=.9), 고려대학교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M=2.19, SD=1.11) 등도 중요한 선택 요인이었으며, 특정 교수진·연구진과의 연구·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M=2.07, SD=1.05) 역시 유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어느 대학에 가는지 상관없이 한국으로 오고자 했다가(M=1.92, SD=.93), 자국에는 없는 전공이나 프로그램을 학습하고(M=1.85, SD=.97),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충고에 따랐다(M=1.89, SD=1.02)는 등의 선택요인들은 비교적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1지망 학교에서 떨어진 후 차선택으로 고려대학교를 선택(M=1.33, SD=.7)한 경우는 가장 적었다.

<표 23>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407	2.69	1.05
자국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의 질	407	2.49	1.12
재정지원	412	2.47	1.13
캠퍼스의 인종·문화의 다양성	413	2.20	.90
고려대학교의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교육과정 및 교외활동 프로그램)	409	2.19	1.11
특정교수진·연구진과 수업·연구활동 기회	410	2.07	1.05
학교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었음	406	1.92	.93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조언	409	1.89	1.02
자국에 없는 전공이나 프로그램	404	1.85	.97
한국의 타 대학보다 저렴한 교육비	401	1.80	.92
제1지망으로 지원한 학교에서 탈락 후, 차선택으로 선택	403	1.33	.70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이러한 이유들은 위에서 논의한 한국 선택의 이유 경우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출신 지역 및 학위과정 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24>의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북미 및 유럽 학생들에 비하여 비용 문제(재정지원, 한국의 타 대학보다 저렴한 교육비)와 교육의 기회 및 질(특정 교수진·연구진과 수업·연구활동 기회, 고려대학교의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교육과정 및 교외활동 프로그램), 자국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의 질) 등의 이유로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미 및 유럽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었을 뿐이지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었다는 대답이 보다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동아시아와 기타 아시아권 학생들에게 한국의 어느 학교로 오느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다. 또한 한국 선택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권 학생들에게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조언은 아시아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이유였던 반면 북미 및 유럽 학생 학생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어강의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기타 아시아와 북미 및 유럽 학생들에 비하여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표 24>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동아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자국에 없는 전공이나 프로그램	1.76	2.19	1.68	4.964**	기>동, 기>북
캠퍼스의 인종·문화의 다양성	2.28	2.20	1.98	3.512*	동>북
재정지원	2.54	3.04	2.19	9.451***	기>동>북
특정 교수진·연구진과 수업·연구활동 기회	2.38	2.39	1.37	37.155***	동>북, 기>북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2.40	3.17	2.91	14.556***	기>동, 북>동
학교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었음	1.65	1.94	2.33	18.704***	북>동, 북>기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충고	2.19	2.02	1.41	19.657***	동>>북, 기>북

고려대학교의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교육과정 및 교외활동 프로그램)	2.48	2.35	1.71	15.989***	동>북, 기>북
자국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의 질	2.87	3.10	1.62	60.163***	동>북, 기>북
한국의 타 대학보다 저렴한 교육비	2.01	2.04	1.40	14.772***	동>북, 기>북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p<.05, **p<.01, ***p<.001

학위 과정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정규 학위과정(학부와 대학원) 유학생의 경우 단기 교환 및 연수생들보다 고려대학교만의 교과·교과 외 프로그램이 그리고 자국보다 나은 고등교육의 질을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표 25> 참조). 특히 대학원생들은 다른 과정생들에 비해 재정지원 그리고 특정 교수·연구진과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갖고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두 가지는 대학원 과정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기 교환 및 연수 유학생들은 특정 학교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유학 오고자 한 경향이 보다 강하였고, 학부 과정생보다는 영어강의가 대학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단기 유학 과정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재정지원	1.93	2.13	3.03	41.046***	대>단, 대>학
특정 교수진·연구진과 수업·연구활동 기회	1.54	1.85	2.51	31.616***	대>단, 대>학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2.97	2.55	2.67	3.723*	단>학
학교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었음	2.26	1.83	1.76	8.698***	단>학, 단>대
고려대학교의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교육과정 및 교외활동 프로그램)	1.78	2.27	2.50	12.475***	학>단, 대>단

자국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의 질	2.02	2.73	2.64	11.279***	학>단, 대>단
한국의 타 대학보다 저렴한 교육비	1.54	1.79	2.04	8.235***	대>단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 약간 중요함; 3=매우 중요함; 4=가장 중요함

*p<.05, **p<.01, ***p<.001

2. 학문적 경험 측면

1) 유학 생활의 어려움: 학업 생활, 사회 생활, 개인적 감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생활 중 어떤 면을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지 이를 학업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개인적 감정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을 때, 설문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26> 참조).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M=2.85, SD=1.33)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 생활(M=2.55, SD=1.26)과 개인적 감정(M=2.32, SD=1.21)과 관련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표 26> 유학 생활의 어려움: 학업생활, 사회 생활, 개인적 감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업생활의 어려움	390	2.85	1.33
사회 생활의 어려움 (친구, 교수와의 관계 등)	385	2.55	1.26
개인적 어려움 (감정상태 등)	376	2.32	1.21

1=제일 덜 어려움; 5=가장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또는 학위과정 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출신 지역별로는 학업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단기 과정 유학생보다는 학부와 대학원과 같은 정규 학위과정의 유학생들이

더 큰 학업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표 27> 참조).

<표 27> 유학 생활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학업생활의 어려움	2.52	3.17	2.93	5.439**	학>단, 대>단

1=제일 덜 어려움 ; 5=가장 어려움

*p<.05, **p<.01, ***p<.001

2) 학문적 어려움

위와 같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유학생들 측면들과 비교하여 학업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정규 학위과정의 유학생일수록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표 28>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움의 정도를 묻는 척도 1-5점 가운데 문항들의 평균 점수가 3점 이하로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M=2.97, SD=1.28)’이고 그 다음으로는 재정지원의 이용 가능성(M=2.66, SD=1.27)이 학업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28>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어려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384	2.97	1.28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	383	2.66	1.27
교육비감당(등록금, 수업관련 용품 등)	383	2.49	1.18
고려대학교 국제처에서 제공하는 조언이나 정보	385	2.47	1.17

1=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5=매우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별로는 동아시아권 유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여러 항목에서 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과 교육비와 같은 재정문제를 비롯하여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더욱 느끼고 있었다(<표 29> 참조). 이는 학위 과정별로 비교하였을 때 특히 학부 과정의 유학생들이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과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느끼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표 30> 참조). 전체적으로 동아시아권 외국인 유학생들과 학부 과정의 유학생들이 학문적 어려움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9>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동아 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교육비 감당(등록금, 수업관련 용품 등)	2.171	2.45	2.27	4.438*	동>북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	2.94	2.19	2.41	10.506***	동>기, 동>북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3.21	2.98	2.53	9.033***	동>북

1=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5=매우 어려움

*p<.05, **p<.01, ***p<.001

<표 30>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재정적 지원의 이용가능성	2.52	3.27	2.39	15.364***	학>단, 학>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2.48	3.13	3.18	9.816***	학>단, 대>단

1=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5=매우 어려움

*p<.05, **p<.01, ***p<.001

3) 학문적 경험의 만족도

위와 같이 본 연구조사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문적 어려움은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지만 그 중 재정적인 측면과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

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경험에 대하여 반대로 어려움이 아닌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때 그 결과 또한 매우 높은 편이었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1-5점 척도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에서 대부분 평균이 3.0이 넘었으며, 최고 높은 평균은 도서관이나 컴퓨터 시설과 같은 고려대학교의 학습관련 자료 이용에 대한 것이었다(M=4.20, SD=.91). 그 다음으로는 대학시설의 질(M=4.13, SD=.85), 교수 및 강사의 질(M=3.97, SD=.87) 그리고 연구시설장비(M=3.8, SD=.98)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M=3.76, SD=1.07), 교수의 영어구사능력(M=3.74, SD=.95), 학습지원서비스(M=3.71, SD=1.04), 장학금과 학자금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M=3.67, SD=1.19), 행정가나 교직원의 도움(M=3.66, SD=1.08), 영어강의 개설 정도(M=3.61, SD=1.09)도 고려대학교에서의 학문적 경험을 만족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M=3.27, SD=1.15)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경험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었다.

<표 31> 고려대학교에서의 학문적 경험 만족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관련 자료(도서관, 컴퓨터 등)	387	4.20	.91
대학시설의 질(예:도서관, 체육관)	379	4.13	.85
교수 및 강사의 질	388	3.97	.87
연구시설장비(연구실, 기술 등)	288	3.80	.98
교수(지도 교수)	377	3.76	1.07
교수의 영어구사능력	377	3.74	.95
학습 지원 서비스	374	3.71	1.04
장학금/학자금/다른 재정적 지원	357	3.67	1.19
행정가나 교직원의 도움	385	3.66	1.08
영어강의 개설 정도	371	3.61	1.09
타 대학에서 학점 이전	273	3.52	1.06
교직원의 영어구사능력	383	3.45	1.02
교육비	351	3.27	1.15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과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경험들, 즉 학습관련 자료와 학습지원 서비스 그리고 교수 및 강사의 질에 관한 부분들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북미 및 유럽 지역 유학생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표 32> 참조). 그러나 기타 아시아 지역 학생들은 교직원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유학생들은 다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보다 교육비와 장학금과 같은 재정지원에 대하여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학문적 경험의 만족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동아 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학습관련 자료 (도서관, 컴퓨터 등)	4.31	4.33	3.96	5.701**	동>북, 기>북
학습지원 서비스	3.86	3.77	3.38	6.343**	동>북
교육비	2.99	3.24	3.82	14.870***	북>동, 북>기
교직원의 영어구사능력	3.54	3.08	3.59	4.915**	동>기, 북>기
장학금/ 학자금/ 기타 재정 지원	3.50	3.89	3.89	3.771*	북>동
교수 및 강사의 질	4.14	3.96	3.75	6.531**	동>북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p<.05, **p<.01, ***p<.001

학위 과정에 따라서는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은 정규 학위 과정의 학생들보다 교직원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33> 참조).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들에 대하여 그리고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정적 지원과 교육

비를 비롯하여 학습지원 서비스, 교수들, 그리고 행정가 및 교직원의 도움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표 33> 학문적 경험의 만족도: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학습지원 서비스	3.70	3.45	3.84	4.038*	대>학
교육비	3.54	2.76	3.41	11.973***	단>학, 대>학
교직원의 영어구사능력	3.77	3.35	3.39	5.150**	단>학, 단>대
교수(지도교수)	3.72	3.33	4.06	15.066***	대>단>학
행정가나 교직원의 도움	3.80	3.36	3.80	5.552**	단>학, 대>학
장학금/ 학자금/ 다른 재정 적 지원	3.67	3.07	4.01	17.917***	대>단>학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여 <표 34>의 영역들에 있어 성장하였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와 민족을 이해하는 능력(M=4.02, SD=.67) 부분이 가장 향상된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특정 분야 또는 교과 지식(M=3.99, SD=.73)과 한국어 능력(M=3.95, SD=.77)이 향상되고, 일반 지식(M=3.89, SD=.64)이나 다양한 인종·문화·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M=3.82, SD=.79) 그리고 분석 능력 및 문제해결능력(M=3.81, SD=.72)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영어 능력(M=3.47, SD=.85)이나 컴퓨터 기술(M=3.50, SD=.66), 그리고 수리적 능력(M=3.18, SD=.77)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에서의 이문화 경험을 통해 다른 국가와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또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 능력과 교과지식도 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영어 능력이나 컴퓨터 기술 등은 변화가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가 생각하는 본인의 능력 향상 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다른 문화·민족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367	4.02	.67
특정 분야나 교과 지식	364	3.99	.73
한국어 능력	367	3.95	.77
일반지식	366	3.89	.64
다른 인종·문화·민족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367	3.82	.79
분석 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367	3.81	.72
협동 능력	367	3.77	.74
연구 기술	365	3.68	.76
대중연설 능력	367	3.65	.78
학문적 글쓰기	366	3.64	.77
컴퓨터 기술	367	3.50	.66
영어 능력	367	3.47	.85
수리 능력	368	3.18	.77

1=더욱 취약해졌다; 2=취약하다; 3=변화가 없다; 4=향상되었다; 5=더욱 향상되었다

4) 장래 계획에의 도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이 고국에서의 직업 또는 향후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였다. 아래 <표 35>를 보면, 이 질문에 응답한 외국인 유학생의 92.8%가 고국에 돌아가 일을 하는데 있어 한국에서의 교육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였고, 91.7%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교육이 앞으로의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대학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한국 유학의 고국에서의 장래 직업 또는 교육을 위한 유용성 여부

	고국에서의 장래 직업	장래 교육
네	337 (92.8%)	333 (91.7%)
아니오	26 (7.2%)	30 (9.3%)
전체	363	363

무응답(122명)

3. 사회적 경험 측면

1) 유학 생활의 어려움: 사회 생활 측면

앞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 중 사회 생활을 학업 생활 다음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6>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회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보다 아시아권 유학생들이 더 느끼는 경향을 보였고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생들보다 학부와 대학원 같은 정규학위과정 유학생들이 보다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와 <표 37> 참조).

<표 36> 유학 생활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비교

	동아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사회 생활의 어려움 (친구, 교수와의 관계 등)	2.69	2.80	2.14	7.144**	동>북, 기>북

1=제일 덜 어려움 ; 5=가장 어려움

*p<.05, **p<.01, ***p<.001

<표 37> 유학 생활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비교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사회 생활의 어려움 (친구, 교수와의 관계 등)	2.10	2.80	2.64	7.793***	학>단, 대>단

1=제일 덜 어려움 ; 5=가장 어려움

*p<.05, **p<.01, ***p<.001

2)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중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38> 참조).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가 2점 안팎으로 대부분 낮은 편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어려움은 한국어로 의사소통(M=2.84, SD=1.34)하는 부분이었다. 그 다음은 한국 학생과 사귀는 문제(M=2.76, SD=1.24)나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M=2.44, SD=1.13)의 문제였고, 반면에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사귀는 것(M=1.70, SD=.99)은 가장 덜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표 38>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어려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의사소통	385	2.84	1.34
한국 학생과 친구 사귀기	384	2.76	1.24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수용	385	2.44	1.13
학교 캠퍼스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383	2.39	1.18
고려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의 수용	385	2.18	1.08
한국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짐	385	2.12	1.03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친구 사귀기	384	2.11	1.14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 사귀기	383	1.70	.99

1=제일 덜 어려움; 5=가장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지역에 유학생들은 북미 및 유럽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한국 생활을 편안하게 느낌, 학교 캠퍼스에서 환영받는다 고 느낌, 그리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 친구를 사귀기 등의 사회적 경험에 대해 어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9> 참조). 마찬가지로 정규학위과정 유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보다 어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표 40> 참조).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도 북미 및 유럽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학교 캠퍼스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유학생들보다 어려움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많은 측면에서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39>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어려움: 출신 지역별

	동아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한국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짐	2.23	2.20	1.86	4.232*	동>북
학교 캠퍼스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2.67	2.49	1.96	11.933***	동>북, 기>북
한국어 의사소통	2.59	3.33	2.97	7.250**	기>동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친구 사귀기	2.43	2.10	1.71	12.512***	동>북

1=제일 덜 어려움; 5=가장 어려움

*p<.05, **p<.01, ***p<.001

<표 40>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어려움: 학위 과정별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한국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짐	1.84	2.31	2.16	4.956**	학>단, 대>단
학교 캠퍼스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1.99	2.78	2.41	10.090***	학>단, 대>단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친구 사귀기	1.80	2.24	2.21	4.738*	학>단, 대>단

1=제일 덜 어려움; 5=가장 어려움

*p<.05, **p<.01, ***p<.001

3) 사회적 경험의 만족도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 이외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 부분은 전반적인 대학에서의 경험(M=3.74, SD=.95)과 그 다음으로 친구들과의 또는 동아리에서의 사교활동(M=3.68, SD=1.02)에 관한 부분이었다(<표 41> 참조). 그러나 정규교과 외의 활동(M=3.33, SD=1.14)은 크게 만족하고 있지 못했고, 교내(M=2.63, SD=1.11)와 교외(M=2.67, SD=1.14)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불만족에 가까웠다.

<표 41>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만족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인 대학에서의 경험	352	3.74	.95
사교분위기(친구, 활동)	385	3.68	1.02
정규교과 외의 활동	358	3.33	1.14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272	2.67	1.14
학교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262	2.63	1.11

1=극히 불만족; 5=극히 만족

*p<.05, **p<.01, ***p<.001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반적인 대학에서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42> 참조). 학위과정별로는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이 정규학위과정의 유학생들보다 정규교과 외의 활동과 전반적인 사교 분위기에 대하여 보다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2>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만족도: 출신 지역별

	동아시아 (n=178)	기타 아시아 (n=50)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2.51	3.03	2.74	3.203*	n.a.
전반적인 대학에서의 경험	3.47	3.77	4.06	12.083***	북>동

1=극히 불만족; 5=극히 만족

*p<.05, **p<.01, ***p<.001

<표 43>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만족도: 학위 과정별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정규교과 외의 활동	3.73	3.11	3.19	8.526***	단>학, 단>대
사교 분위기 (친구, 활 동)	4.03	3.67	3.56	7.085**	단>학, 단>대

1=극히 불만족; 5=극히 만족

*p<.05, **p<.01, ***p<.001

4) 교우관계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중 교우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표 44>과 <표 45> 참조), 44%에 달하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 학생과의 교우 관

계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희망하는 교우관계는 한국 학생의 경우가 5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로 위의 현재 교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현재 교우관계: 국적별

	빈도수(명)(%)
대부분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	170 (43.9%)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	109 (28.2%)
대부분 한국 학생	72 (18.6%)
재학 중인 대학에는 친구가 없음	3 (0.8%)
기타	33 (8.5%)
전체	387

무응답(38명)

<표 45> 희망하는 교우관계: 국적별

	빈도수(명)(%)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	33 (8.5%)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	111 (28.7%)
한국 학생	196 (50.6%)
재학 중인 대학에는 친구가 없음	47 (12.1%)
전체	387

무응답(38명)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중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은 대체적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본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M=3.01,

SD=1.08)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참조). 한편 고려대학교에 있는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M=2.93, SD=1.11)과 한국인 학생들(M=2.71, SD=.95), 교직원(M=2.54, SD=.93)에게도 본국의 가족과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에 있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M=2.39, SD=.98)에게는 약간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우관계 중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로부터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도움을 받는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국의 가족과 친구들	353	3.01	1.08
고려대학교에 있는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	326	2.93	1.11
고려대학교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	340	2.71	.95
고려대학교의 교직원들	334	2.54	.93
고려대학교에 있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	350	2.39	.98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어느 정도 그렇다; 4=많이 그렇다

5) 차별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한국에서 본인이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다고 느끼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한 373명 중 대부분의 학생들 309명(82.8%)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다음 <표 47>의 결과에서도 과반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같은 반 친구, 교수, 또는 교내 행정직원으로부터, 학교 안 또는 밖에서 한국학생과 비교하여 공정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한국학생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특히 학교 밖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대답

(44%)이 학교 안에서 차별받았다는(21.4%) 대답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 학교 밖에서 차별이나 불쾌한 경험을 받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7> 한국학생과 비교하여 다음의 상대에게서 또는 및 장소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명)

	학생	교수	행정직원	교내(교실 밖)	교외
네	255 (66.9%)	286 (74.9%)	304 (80.0%)	298 (78.6%)	211 (56.0%)
아니오	126 (33.1%)	96 (25.1%)	76 (20.0%)	81 (21.4%)	166 (44.0%)
전체	381 (100.0%)	382 (100.0%)	380 (100.0%)	379 (100.0%)	377 (100.0%)

무응답: 학생(44), 교수(43), 행정직원(45), 교내(46), 교외(48)

다음으로 한국 학생이 아닌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하여 한국 사람들로부터 또는 학교 안팎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표 48>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는 한국 학생과 비교하였을 때보다, 교내 또는 교외의 차이, 그리고 대상자와 상관없이 공정한 처우를 받았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72-86%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안에서보다는 학교 밖에서, 그리고 교수와 행정직원보다는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표 48>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하여 다음의 상대에게서 또는 장소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명)

	학생	교수	행정직원	교내(교실 밖)	교외
네	290 (75.9%)	316 (82.7%)	326 (86.0%)	308 (81.9%)	271 (72.5%)
아니오	92 (24.1%)	66 (17.3%)	53 (14.0%)	68 (18.1%)	103 (27.5%)
전체	382 (100.0%)	382 (100.0%)	379 (100.0%)	376 (100.0%)	374 (100.0%)

무응답: 학생(43), 교수(43), 행정직원(46), 교내(49), 교외(51)

다음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성별, 국적, 인종, 종교, 한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 또는 성적 기호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하였다(<표 49> 참조). 가장 차별의 대상이 된 경우는 한국어 능력(32.6%)과 그 다음으로는 국적(27.4%)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인종(13.8%), 외국어 능력(10.3%) 그리고 성별(9.3%) 등도 외국인 유학생이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경험(명)

	성별	국적	인종	종교	한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	성적 기호
네	35 (9.3%)	104 (27.4%)	52 (13.8%)	20 (5.3%)	123 (32.6%)	39 (10.3%)	15 (4.0%)
아니오	342 (90.7%)	275 (72.6%)	324 (86.2%)	356 (94.7%)	254 (67.4%)	338 (89.7%)	360 (96.0%)
전체	377 (100.0%)	379 (100.0%)	376 (100.0%)	376 (100.0%)	377 (100.0%)	377 (100.0%)	375 (100.0%)

무응답: 성별(48), 국적(46), 인종(49), 종교(49), 한국어 능력(48), 외국어 능력(48), 성적 기호(50)

6) 생활면

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 50>과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소 구하는 것($M=2.74$, $SD=1.22$)에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개인 그리고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M=4.15$, $SD=.86$)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고 의료 및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에는 만족하는 편($M=3.54$; $SD=1.01$)이며 생활비와 지원 서비스 이용 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M=2.51$, $SD=1.18$).

<표 50> 생활면에서의 어려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생활비 감당(의식주, 교통비 등)	384	2.51	1.18
지원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381	2.52	1.07

1=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5=매우 어려움

<표 51> 생활면에서의 만족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개인과 가족의 안전	358	4.15	.86
의료·가족지원 서비스의 질(예: 아동 보호)	276	3.54	1.01
생활시설의 질과 안락함	336	3.18	1.16
졸업 후 취업준비 정도	287	3.14	1.11
숙소 구하기	332	2.74	1.22

1=극히 불만족; 5=극히 만족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면, 북미 및 유럽 지역의 학생들이 기타 아시아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보다 한국에서의 개인과 가족의 안전 즉 치안 면에서 만족하고 있었고,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은 숙소를 구하거나 생활시설의 질과 안락함의 면에서 정규학위과정의 유학생들보다 보다 만족하고 있었다(<표 52>와 <표 53> 참조). 이는 단기 과정 유학생은 학교에서 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도 장기 체류하는 정기 과정의 유학생일수록 스스로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은 단기 과정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생활비 해결에 어려움을 표하였다(<표 54> 참조).

<표 52>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면에서의 만족도: 출신 지역별

	동아시아 (n=163)	기타 아시아 (n=65)	북미 · 유럽 (n=94)	F	사후검증
개인과 가족의 안전	4.14	3.92	4.39	5.214**	북>아

1=극히 불만족; 5=극히 만족

*p<.05, **p<.01, ***p<.001

<표 53>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면에서의 만족도: 학위 과정별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숙소 구하기	3.09	2.62	2.63	4.177*	단>대
생활시설의 질과 안락함	3.60	3.06	3.00	7.546**	단>학, 단>대

1=극히 불만족; 5=극히 만족

*p<.05, **p<.01, ***p<.001

<표 54>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면에서의 어려움: 학위 과정별

	단기 교환·연수 (n=88)	학부 (n=85)	대학원 (n=172)	F	사후검증
생활비 감당 (의식주, 교통비 등)	2.15	2.50	2.74	7.563**	대>단

1=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5=매우 어려움

*p<.05, **p<.01, ***p<.001

주: 출신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7) 졸업 후 계획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업과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졸업 후 학업을 어느 나라에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5>을 보면 한국과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0.1%로 한국과 자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지금의 프로그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유학생은 34.6%로 가장 적었다. 또한 한국에서 지금의 프로그램대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8%로 자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학업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55>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래 학업 계획(명)

	한국에서 학업 지속	고국에서 학업 지속	다른 나라에서 학업 지속
네	147 (44.7%)	157 (47.1%)	213 (61.7%)
아니오	182 (55.3%)	176 (52.9%)	132 (38.3%)
전체	329	333	345

무응답: 한국에서 학업 지속(96), 고국에서 학업 지속(92), 다른 나라에서 학업 지속(80)

이에 비해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해서는 <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83.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60.6%,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60.4%였다. 즉 많은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래 직업 계획(명)

	한국에서 취업	자국에서 취업	다른 나라에서 취업
네	192 (60.6%)	284 (83.8%)	189 (60.4%)
아니오	125 (39.4%)	55 (16.2%)	124 (39.6%)
전체	317	339	313

무응답: 한국에서 취업(108), 자국에서 취업(85), 다른 나라에서 취업(112)

V. 외국인 유학생 면담조사 결과

1. 유학대상 국가 및 대학의 선택

1) 한국 유학 선택

인터뷰에 응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한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숙함, 그리고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비용을 이유로 꼽은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일본 유학도 함께 고려했던 학생들은 일본 역시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친숙하지만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의 유학을 택한 이유로 비용과 언어, 비자를 꼽았다. 일본보다는 한국으로의 유학비용이 더 저렴했고, 개인적으로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학생이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택한 학생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비용은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한국에는 이미 누나도 가 있고, 중국에서 가깝기도 하고, 문화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국가들 보다 비용도 적다는 점에서 한국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언어적 요인을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답변한 학생들의 경우,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때문에 또는 영어권 국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에 도달하기 힘들어 한국에 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하나 배워놓으면 졸업 후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가족과 친지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추천하거나 지지해주었거나, 한국인 친구와 같이 주위에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문화를 접한 지인들로부터 한국과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친숙하게 되어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중고등학교시절에 주위에 한국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한국친구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또는 주말에 그 친구들과 한국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많은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 밖에 전공 선택의 폭과 관련하여 골프 관리와 카지노 딜러와 같은 특정 학과에 흥미를 느껴 한국 유학을 결심한 경우도 있었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다 유학을 결심한 학생들도 있었다. 자국에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한국 유학을 결심한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한국으로의 유학 선택과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도적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국 유학을 다른 중국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겠냐는 질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응답한 17명 중 8명이 개인별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6명은 부정적, 3명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이유에는 영어강의와 같은 한국 교육과 관련된 대담도 있었으나 중국인 유학생끼리의 과도한 경쟁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험이라는 답변과 같이 중국인 유학생 본인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우선 한국 유학을 추천하겠다고 답변한 학생들은 교육의 질과 한국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를 통해 들은 것과 비교해서 한국의 대학은 학술적인 면이나 대학분위기 방면, 학생들의 자주성이나 상호작용면에서는 국내의 학교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요. 하지만.. 뭐랄까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해야 하나.. 각자에게 맞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들에게 외국에 나와서 공부해주는 걸 추천해요. 한국에 와도 좋죠, 한국에도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와 같이 우수한 대학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위의 답변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개인적 상황과 경우에 따라 추천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유학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학생의 성격이나 능력도 중요하며, 치안이 좋기 때문에 여학생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남학생이라면 서구권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인 발전에 더 나을 것이라는 평을 하기도 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한국 유학을 추천을 해도 유학비용이 결코 적지 않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영어권 국가로 유학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앞서 유학의 목적지로 한국을 택한 이유 중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 보니 대학에서 영어를 쓰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다음의 면담내용에서 여러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 대학이 영어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추천해요. 하지만 유학비용 면에서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는 걸 말해 주고 싶네요. 이럴 바엔 차라리 호주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족이라는 신분으로는 한국에서 인정받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는 필수예요. 이럴 바엔 차라리 영어국가로 가는 게 낫겠죠. 제가 대학에 지원할 당시 호주 같은 곳들도 고려해 보았지만 한국이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한국으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과에서는 8-90%를 영어로 강의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의 4개의 전공과목이 모두 영어강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영어국가인 뉴질랜드나 호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네요.

한국유학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은 너무 영어를 중시 한다는 거예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이 나라에서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온 의미가 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여기서 하는 대부분의 수업이 한국어이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저희 전공은 50%이상이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런데 영어강의라 할지라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커요. 수업 외 시간에 혼자 공부를 해야 해요, 책을 많이 봐서 그런 차이를 줄여야 해요. 그런데 만약 국내에서 중국어로 공부를 하는 거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혼자 보충을 하려고 해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시험 스케줄도 빡빡하고 프로젝트도 많아서 혼자 책보고 보충을 해서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같은 전공을 지원한다면, 여기서 공부하는 걸 추천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는 한국 대학들이 영어 강의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는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다수 유학생들이 중국인 유학생이고 이들이 영어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강의가 한국어 강의보다 이해하기 쉬워서 선호한다는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있었지만, 영어강의의 목적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인지 한국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위한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한국에 중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목적 없이 유학 오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서 한국 내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2) 한국 대학의 선택

중국인 유학생들이 본 보고서의 사례학교인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그 장점이라고 생각한 점들은 어학원(한국어문화교육센터), 학교시설, 교육의 질, 학생문화, 명성, 국제화 등이었다.

첫째, 많은 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정규 과정 입학 전 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이 때의 경험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학원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고려대학 주위에서의 생활과 친구 등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 전에 미처 몰랐던 고려대학교의 유명세를 깨닫거나, 학부 과정 입학 시 이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려대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학원에서 단순히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문화와 분위기를 어느 정도 미리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의해 학부 입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학원 수강 후 학부 과정으로의 입학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어학원을 다니면서 본교의 수업 및 각종 활동 등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시설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컴퓨터, 도서관과 같은 학습지원 시설, 캠퍼스 환경, 학습 분위기 그리고 주위 환경의 대학타운다운 분위기 등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꾸준한 학교 시설의 관리·확충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이러한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

한 시설 편의 제공은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Jon & Kim, 2011).

세 번째 교육의 질 그리고 학생들의 학구 분위기는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고려대학교의 장점으로 꼽은 부분 중 하나였다. 우선 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잘 짜인 커리큘럼과 영어강의가 장점으로 언급되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 외적인 교육, 예를 들어 외부 초청 강연을 인상 깊게 보았다는 유학생도 있었다. 학습 분위기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학교 전체의 경쟁적인 분위기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역시 인정하면서도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유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학생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도 배려해주는 교수진도 학교의 장점으로 이야기되었다.

어쨌든 학교가 꽤 엄한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뭘 배우게끔 압박해요.

그 중 가장 좋았던 건 제가 만났던 몇몇 교수님들이예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봐주시거나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제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다고,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 하세요. 당시 어학원에 있을 때도 이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 학부에 입학하고 나서 만난 교수님들 역시 이러셨어요. 그리고 종종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곤 하는데 한국엔 중국문화와 연관되어있는 역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국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분들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시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이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현재와 같은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려대학교의 교육과정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학생 문화로,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 및 공동체적 분위기로 대표되는 고려대학교의 문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으며, 대부분 이런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에 정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학생 문화에 얼마만큼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학교의 명성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고려대학교의 명성을 학교를 선택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장점이라고 밝혔다. 한 유학생은 한국의 대학 중 고려대학교라고 하면 주변 지인도 많이 알며 이러한 인지도가 졸업 후 취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여전히 영미권의 대학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즉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대학교의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의 국제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사례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및 이후 장점이라고 뽑은 부분들은 우수한 교육의 질과 사례 대학교의 분위기 및 특징들이었다. 즉, 입학 전에는 어학원과 같은 경로를 통해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알게 되고 경험한 것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재학 중에는 양질의 교육 및 학생들과의 친밀한 교류가 큰 장점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고려대학교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개별 대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인 교육 프로그램의 양질화와 함께 그 학교만의 문화와 분위기에 유학생들이 구성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한국

의 학교들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학문적 경험 측면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 유학생들 중 대다수가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였고, 이는 크게 학문적 경험과 및 사회적 경험에서의 어려움으로 분류 가능하였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경험의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1) 언어 문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은 한국어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시험 볼 때도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듣는 강의는 어학원에서 외국어로서 배우는 한국어와 달리 교수자가 발음과 속도 등 외국인을 특별히 감안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생활 한국어가 아닌 학문을 위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구사해야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여 어려운 점 등도 함께 언급되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20-30%정도 알아들었어요. 이번 학기엔 8-90%정도 알아듣고요. 몇몇 사투리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가끔씩 교수님들이 농담을 하시거나 특정단어를 쓰실 때는 못 알아듣고요. ... 설령 강의시간에 정말 열심히 듣고 책을 달달 외워간다고 해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저는 그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고 확실하게 이해했거든요. ... 문제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 답을 쓸 수 있을 리가 있겠어요. 외국인으로써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

속도도 한국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 친구들이 벌써 몇 장째 읽고 있을 때 저는 반 페이지도 겨우 읽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느끼는 영어에 대한 경험이었다. 이는 본인의 영어 실력, 각 전공에 따른 수업 방식, 그리고 교수 개인의 방식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본인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영어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경우는 한국에 와서도 오히려 한국어 강의 대신 영어 강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에, 한국에서의 영어 강의는 어렵고 따라갈 수 없다고 불만을 표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국어 강의와 영어 강의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는 질문에 한 중국인 유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당연히 한국어 강의죠. 한국어는 웬만한 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교수님의 강의내용이나 수업분위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거든요. 영어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교수님들 발음이 이상해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이걸 한국학생들도 동감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잘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그런 느낌 이에요. 완전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데 그럼 이 강의를 듣는 의미가 없죠 뭐

즉 영어강의가 외국인 학생들이 전공수업을 이해하기에 더 수월하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한국에서의 학업을 위해 또 다른 외국어인 영어 능력이 필요하고 이에 있어서도 한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제 영어실력이 워낙 좋지 않아서 공부할 때 조금 힘든 편이에요. 저희가 배우고 있는 교재들도 다 영문판이거든요. 또 저희들은 한 과목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한국학생들의 3배의 시간이 들거든

요. 문제는 그렇게 3배의 시간을 들여도 막상 시험을 보면 한국학생들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면으로 스트레스가 커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수학하기 위해 유학을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특히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아무래도 영어겠죠. 정말이에요. 당시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 것도 영어와 별로 관계가 없는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한 거였거든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강의 2개만 들으면 졸업이 가능한데 ... 여기 와서 보니까 고려대 학생들은 중국 청화대 학생들과 맞먹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라 영어실력이 다들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다들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고요. ... 대부분 학생들끼리 영어로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 진짜 충격 받았는데, ... 나는 영어 잘 못한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들이 중국인들은 다 영어를 못 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중국인들은 영어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썩 그랬어요. 그 후로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영어로 교류하는 걸 볼 때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무리 현재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해도 아직은 영어가 세계 공통언어니까요. 예전에 중국에 있었을 때는 굳이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 보니 역시 영어는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어요.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 간에도 영어 실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른 수준을 감안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강의가 중국인 유학생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강의 듣는 것을 돕는다 해도 한국 학생의 이해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교수법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점, 그리고 영어 사용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이해력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을 때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한다.

대부분 만족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지난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영어강의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때는 한국어를 종종 했어요. 이해하죠, 아주 이해해요, 여긴 어차피 한국 대학교고 한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는 게 목적이니깐 한국학생들을 이해시켜야 되죠. 이해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깐 머리가 아파요, 교수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한국어수업은 거의 듣지 않아요. 교양과목 신청할 때 영어 강의를 선택 하지 못 해서 결국 한국어 강의를 신청했죠. 한국어 강의의 경우, 한국학생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적 역시 좋지 않아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영어강의를 더 좋아해요.

2) 경쟁과 성적 스트레스

언어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과 경쟁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혼자 해야 한다는 외로움과 부담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학업부담은 꽤 커요. 아까 말한 그런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을수록 한국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요. 혼자 외국에서 유학하고,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깐

우선은 언어에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언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라든지. 한국인들은 다 같이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혼자 하니깐, 저는 계속 혼자 하고 같이 교류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느낌, 과 안에서는 완전히 격리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한국 학생과 비교하여 실력으로 입학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여겨 거리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수업에서는 간혹 교수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성적을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한국인들이랑 거리가 있었다는 거요.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고려대에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노력은 했지만 그런 서류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고려대학에 들어온 거라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종의 자괴감이 들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국인들만큼은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들도 그래요, 외국인들 학점에 있어서 어떤 교수들은 특별히 배려해 해서 점수를 주는데 좀 후한데, 많은 교수들이 중국유학생들에게 있어서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는 안 좋아요.

이 밖에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성적에 있어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경우 매우 부담스럽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성적 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국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대학 이전에 배운 교과과정의 차이로 전공과목 수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공과목을 말하는 거라면 문제가 좀 있죠. 문과대 과목들이 중국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기초지식이 필요한데, 여기 문과대는

어떤 어학 관련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이전의 지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수학이나 화학물리, 미적분, 프로그래밍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안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학생들은 미적분을 배웠으니깐 처음엔 차이가 크죠. 게다가 미적분 수업시간에는 교수님들이 한국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니깐 몇 단원을 뛰어넘고 수업시간에 시험을 봐요. 물론 첫 학기엔 대부분 과락을 하죠, 제가 아는 것 만해도 공대에 중국학생 5-6명이고, 학부에선 첫 학기는 다 과락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안 배운 거니깐 어쩔 수 없어서요.

3) 교수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는 크게 수업방식, 수업 중 학생을 대하는 태도, 교실 밖에서 학생들의 학습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토론과 발표 등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수업방식, 소규모의 수업 운영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도 한국교수가 수업을 한 거였어요. 제 전공이 좀 지루한 거여서, 교수 혼자 계속 강의하는 식이었어요. 여기서 수업을 좀 들었는데, 실용성이 비교적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수업에서 선생님이 계란 하나랑 종이 열장을 주고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수업은 활동성이 강한 것 같아요.

우선, 한 반에 25-20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한다는 점이에요. 그

래서 교수님이 많은 학생들을 챙겨주실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보통 한 반에 40-5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해요. 선생님 역시 학생 한 명 한 명을 챙기기가 힘들죠.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번 친구 수업을 같이 청강한 적이 있어요. 그 대학 역시 200-300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더라고요. 여기처럼 20-30명의 소수의 학생들끼리 수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제 생각에, 교수님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렸을 때 비로소 각 학생의 발전된 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발휘할 수 있겠죠...(생략)...저희 전공수업 같은 경우엔 만약 신청한다면 대략 20명 정도가 수업하게 되고요. 주요 교양과목 같은 경우엔 2-300명 정도 되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20-30명의 소수 정예의 수업의 경우 교수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신경을 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생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학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교수와 자연스럽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수님의 경우에는 ... 중국 대학은 다 한 반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담임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고 학생들끼리고 같이 기숙사를 쓰고 하니 친해지기가 쉽지요. 그런데 고려대의 경우에는 서로 친해지기가 조금 어렵고 다들 강의가 끝나면 각자 가버리거든요. 강의를 끝나고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오늘 강의내용에 뭐 질문 있냐고 물어보시면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한편 수업 현장에서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이 많았

다. 물론 지식적인 면에서는 한국인 교수의 한국어 강의를 반 이상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교수가 수업 시간 중간 중간 던지는 농담의 경우 알아듣기 힘들다고 답했다. 또한 교수와 대화를 하려 해도 언어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어로 강의를 듣는 것은] 괜찮은 편이에요. 가끔씩 수업 중간 중간에 수업분위기를 띄우려고 교수님이 농담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물론 바로 이해하진 못해요. 친구들이 다 웃고 있을 때 저 혼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생략)...지식방면은.. 교수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대체적인 내용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상세한 내용까지 100% 다 알아듣기는 조금 힘들어요.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몇 교수님들은 우리가 유학생인걸 아시고 저희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시려고 해요. 하지만 몇몇 교수님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생들과 대화하는 걸 조금 번거로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이래요. 다른 건 없어요.

한편 수업 중 교수의 학생 차별 문제는 교수와 학생의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특히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 교수들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에게 성적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유학생들 스스로가 느끼는 오해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어 강의는 교수들이 조금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깐 성적을 줄 때 A 중 몇 개는 꼭 말레이

시아 학생들한테 배정하는 식이에요. 제 생각엔 좀 불공평 한 것 같아요.

교수들도 그래요, 외국인들 학점에 있어서 어떤 교수들은 특별히 배려는 해서 점수를 주는데 좀 후한데, 많은 교수들이 역사가 남긴 문제이겠지만 중국유학생들에게 있어서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이 생각하는 데로 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는 안 좋아요.

수업 외의 학습관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지도교수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도교수제가 있어도 지도교수와 만날 기회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로 소수의 학과 소속 교수들이 많은 수의 학부학생들을 지도 담당학생으로 배당받아 야기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 수업이 끝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와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요? 평소에 별로 교류가 없어서요. 저희들은 지도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첫 학기 때는 저희를 부르셔서 같이 밥도 먹고 했지만 후에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아마 교수님들도 바쁘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지도교수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교수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유학생들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매 학기마다 지도교수를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공부나 생활 같은 거에 문제가 있으면 매 학기마다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얘기 할 수 있어요. 꼭 지도교수 말고도 수업을 들

있던 교수를 찾아 갈 수도 있고 수업을 안 들은 교수들도 좋아해요.

한국... 고대에서 제가 느끼기엔 교수님을 찾아가서 뭘 얘기하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수업 내 분위기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좀 신중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이에요. 근데 한국은 너무 심하지 않은 농담 같은 건 해도 되고, 형제자매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에선 조금 그, 감히 못하는, 선생님이랑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지도교수제에 대한 상반된 반응은 지도교수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수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 지도에 관심이 많은 교수의 경우 열린 마음으로 학생을 대하고, 유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이와 같은 점을 잘 드러내 준다.

교수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수님한테 있죠. 우선 교수님이 제 국적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야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많이 찾아뵙고는 했죠. 중국에 "예의는 아무리 차려도 탓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마주쳤을 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고 수시로 교수님을 찾아뵙는 것도 좋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이걸 서로를 이해하는 문제예요. 조금 적극적이라면 교수님은 보통 거절하지 않으시죠.

3. 사회적 경험 측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적 경험은 크게 차별 경험, 교우 관계,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인터뷰 결과 한국 학생과 친구가 되고 싶어도 한국에서 대부분 중국인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대상도 중국인 친구들이라고 했다.

중국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수다를 떨거나 마음속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한국친구들과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만 그러는 경향이 있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중국친구들과는 쇼핑을 가기도 하고 카페도 가고 공부도 하고요. 일상생활은 아무래도 중국친구들과 더 많이 보내게 되죠. 한국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화제나 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깊은 속마음을 내 비추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가끔 있기도 해요.

제일 친한 친구요? 제일 친한 친구는 당연히 중국인이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친구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같이 일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여럿이 같이 만나지 않으면 서로 어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종종 같이 밥먹고 뭐 놀자고 하는데 느낌은, 그런, 진심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의 거리감은 언어의 장벽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진정한 친구요?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만약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귀게 되면 때로는 속마음을 터놓고 싶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대화 할 땐 일반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래요. 제 한국 친구 중에 여자가 있는데, 한번은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해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중국 친구와 있을 때처럼 최근에 어쨌고 저쨌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친구들과 대화하기 전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미리 찾아놔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속마음을 터놓거나 회로애락을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볍고 즐거운 소재의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학생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약 다른 중국인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몇몇 한국인들은 우리들과 교류하기를 원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별로 상대하려 하지 않아요. 학생들 간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한 이유 중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겠죠.

또 같은 과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거나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으로서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되고(visibility) 주목을 받는다는 스트레스(Paige, 1993)와 함께 외로움을 느끼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 부족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로 종종 언급되었다.

배척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에 융화되기가 쉽지 않아

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49명은 한국인이고 저만 중국인이란면 그 사람들은 저를 안 쳐다 볼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뭐랄까... 그 사람들은 이 50명이 모두 같다고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50명은.. 제가 처음 이런저런 모임에 참가 할 때 그 사람들 모두가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한 사람이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 50명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도 열 몇명 정도 밖에 서로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다 알고 있죠. 제가 특별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이런 특별함이라는 건 제가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 외에도 내 스스로 이 전체에 융화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한 학기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었죠.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러한 느낌의 원인을 한국어 능력 또는 문화 차이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요, 전공 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언어에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언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라든지. 한국인들은 다 같이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혼자 하니깐, 저는 계속 혼자 하고 같이 교류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느낌, 과 안에서는 완전히 격리된 느낌이에요.

음..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처음 한국인, 그 한국학생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 울타리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랄까,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 중에서도 한국의 대학문화 즉 중국보다 강한 선후배 문화와 음주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국의 계급문화에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선배와 후배간의 관계요. 또 한 가지는 나이예요. 중국에서는 나이가 어떻게 간에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되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요.

한국 학생과 친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한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다음의 중국인 유학생의 이야기는 고립된 유학생들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다양한 곳에서 온 다양한 전공 사람들이랑 더 많이 어울리고 싶어요. 보통 도서관에서 책보고, 수업이 끝나도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11시 이후에 집에 오는데, 이런 생활이 너무 심심해요, 교류도 거의 없고요. 어쩔 때 많이 바쁠 때는 3일인가 5일 동안 한마디도 안하고 가방 매고 학교랑 집, 그리고 도서관, 도서관에서 학교 이런 식으로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류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유로 한 중국인 유학생은 아래와 같이 한국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국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나 학생회 같은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유학생들로 하여금 한국학생들과 잘 융화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지금 고려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한국학생들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 연락도 잘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과 저 사이에 무언가 벽이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아마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과 큰 연관이 있을 거 같네요.

저 역시도 교류하는 현지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문제와 관해서 생각해보면... 제가 길을 가다가 아무나한테 저 그쪽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체계랄까, 이런 환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의 중국인 유학생이 설명하듯이 한국 학생이 중국인 유학생과 비교하여 그 외 일본인 또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유독 중국인 유학생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는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온 유학생들과는 정말 잘 지내고 일본인들과도 그럭저럭 잘 지내는 거 같은데 유독 중국인들과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어쩔 땐 잘 대해주고 어쩔 땐 그렇지 않아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 같은 느낌 이예요. 그래서 전 몇 명의 전혀 거리감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의 국가에 관계없이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채는 외국인이니까 어찌고저찌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 같아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본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중국과 중국인에 대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무시한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이고 중국인은 더럽고 시끄럽다는 편견을 갖고 있고, 현재의 중국이 아닌 과거의 중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권양

이, 2008).

아마 몇 년 전의 중국은 별 볼 일 없었겠지만 현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예전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서 중국인을 떠올리면 가난하고 낙후되고 더러운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같아요. 선입견에 사로잡힌 거 같은 느낌이에요.

이러한 한국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 밖 숙소를 구하는 문제서부터 길거리에서 겪는 불편한 경험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고시원에 들어갔을 당시 거기 아줌마가 자기는 한 번도 중국인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중국인은 더럽고 시끄럽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게 된지 반년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정말 잘 대해주시고 절 좋아해주세요. 후에 많은 학생들이 그 고시원에 들어왔는데 3개월 치 방세를 밀린 채 도망 간 것도 한국인이었고, 몇 개월 치 방세를 밀린 것도 한국인이었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지저분한 것도 다 한국인이었어요. 사실 중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한국인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어 버린 그 생각들 때문에 아직도 중국이 낙후되고 더럽고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중국인 유학생들은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이 한국인들이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무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중국 유학생들한테, 사람들이 특별히 중국 사람들을 그 뭐냐 살해하자는 그런 토론회도 있어서 가입해서 들어가 봤죠. 어쨌든, 그때 친구 하나랑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

고 와서 우리를 막 욕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전 중국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웃겨요. 바나나 하나 주면서 중국에는 바나나 있냐고 물어봐요. 웃기죠. 그런데 그럴 때 설명하기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이 아직도 변발을 기르지 않냐고, 또 북한처럼 빨간 견장 달지 않냐면서, 그런 걸 물어봐요.

또한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은 평상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만 친하게 지내려 한다는 인상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저희를 환영할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어떤지 물어보겠죠. 중국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 좀 번역해 줄 순 없겠냐고도 하고요. 하지만 그 목적들을 다 이루고 나서 막상 제가 그 친구들을 찾아갔을 땐 지금은 좀 바쁘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곤 해요.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 도움을 받았으니 체면상 한번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까 말했던 그런 아줌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국인 이라는 거에는 별 반응이 없는데 만약 물건을 사면 잘 대해주고 만약 물건을 안 사게 되면 돈 없으면 오지도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러한 한국 학생과의 교류 부족과 어려움에 대하여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는 한국 학생과 만날 기회가 잘 없다는 면 이외에도 중국인 유학생 개개인의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학생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한국 학생들도 외국인 유학생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 있고 양측이 모두 노력해야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한국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인들과 똑같이 ...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참 좋은 거 같아요. 대부분 친절하고요.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만약 자기가 한국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2) 차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교내와 교외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이나 주위 친구들이 학교보다는 교외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교내에서 차별받은 경우는 대부분 교수들이 수업 중에 중국인 혹은 중국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한 것을 예로 들어 말하였고,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 경험이었다. 학교 밖에서는 아르바이트 장소, 지하철, 가게에서 혹은 자취방 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담들을 이야기해주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 따르면 수업 중에 교수가 중국인 혹은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느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수자가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을 가르칠 때 특정 국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잘못된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 친구는 지난 학기에 교양관에서 몇 백 명이 함께 듣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농담 식으로 ... 물론 농담으로 웃자고 한 소리겠지만 약간 모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걸 좋아한다는 주제였는데 대충 이런 내용 이예요.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을 돼지 우리에 넣어놨더니 일본인이 제일 처음으로 뛰쳐나왔고 그 다음이 한국인, 세 번째로 돼지가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요. 말 뜻은 중국인이 더럽다는 거죠. 다른 말들은 사실 저도 특별히 ...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만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했다는 말하는 그 사람 역시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제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전 별로 논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절 깔보면 저도 그 사람을 깔 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가 아는 사람은 수업시간에 교수가 그런대요, 중국인들한테 무시하는 말도하고, 무시하는 행동도 한하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잘 모르니깐 저러나보다 하지만, 교수는 지식인인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교수는 엄청 극단적이에요.

앞서 적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교육의 질 즉 교수의 강의 능력이나 친절도에 만족감을 표하였던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교수자의 유학생에 대한 차별언행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수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업 중에 특정 나라에 대한 차별 발언이 이어지는 경우, 이 상황에 대해 교수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교수가 특별히 중국인 학생의 비하발언을 유도하거나 직접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업분위기가 특정 외국인 학생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차별당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한국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중국 상품들의 품질이 좋지 않은 걸 인정해요, 정말로요, 무작정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 중에 좋은 것도 있거든요. 수업을 듣는 다른 한국인들도 알고 있고요.

교수는 미국인이예요. 수업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자 교환학생이 한 명 있는데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그 애가 막 웃으면서 "아, 우리나라에선 중국상품들은 안 좋다고 생각해"라고 하는거예요. 그 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제 뒤에서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온 인도학생이 중국물건은 어떻게 어떻게 안 좋으면서 자기 iPhone을 중국에서 샀는데 어찌어찌 돼서 전화를 네 번을 하고 얼마나 통화를 길게 하고, 얼마를 썼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사도 되는데 그럼 왜 샀냐"라고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이어폰을 꺼내면서 "이것 봐, 이게 이렇게 됐어"라는 거예요. 그 때는 한국학생들도 웃고, 교수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울 뻔했어요. 손에 힘줘서 안 울려고 했어요. 끝나고 나서 교수한테 가서 당신들은 중국 물건이 싸서 사면서, 안 살 수 있는 걸 사면서, 그리고 당신들 회사가 중국에 와서는 우리 물건이 싸니깐 다른 나라에서는 10불일 신발을 중국에서는 5불에 만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품질을 향상시키라고 하는거냐고 했죠. 아마 수업할 때 선생님은 중국인이 있을 줄 몰랐겠죠.

이와 같은 차별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교수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교수의 지나친 배려로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충을 들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죠.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말한 것처럼, 교수들이 외국인한테 좀 더 잘하고, 외국인을 조금 더 특별히 배려하면 점수를 좀 더 좋게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인 점수가 낮아지게 되니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깐 아마 우릴 환영하지 않나 봐요.

그러므로 교수들은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을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보다, 한국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의 아니게 차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학생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점이다. 즉 미국과 서구권에서 온 유학생들과 지내는 것을 선호하고 일본인 학생과도 원만한 반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거리를 두거나 싫어한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학교 내에서는 그럭저럭 그렇기는 한데 모두의 환영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죠. 중국인이 엄청,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환영받고 또 중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바라는 건 ... 고려대 학생들한테서 느낀 건데,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온 유학생들과는 정말 잘 지내고 일본인들과도 그럭저럭 잘 지내는 거 같은데 유독 중국인들과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어쩔 땐 잘 대해주고 어쩔 땐 그렇지 않아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몇 명의 전혀 거리감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의 국가에 관계없이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한국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중국인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대할 때랑 일본인을 대할 때랑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다 알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마냥 완전히 친절하게 대해주죠. 근데 중국인이 라고 하면 알아보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같이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특히 중국학생들은 저한테 한국인이 어떻게 어떻게 중국인을 깔봤는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요.

3) 시스템과 시설 이용의 어려움

인터뷰 응답자들은 학업 뿐 아니라 생활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었다. 그 중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에 있어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에서의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대학 지원 과정, 각종 서류 등록 및 행정적인 업무의 처리, 수강신청, 보험 등의 서비스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 학교의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일학년 때 수강신청하면서 그런 문제를 겪었어요. 그때 제가 외국인 등록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가 외국인 등록증 번호 뒷자리 수였어요. 그때는 제가 외국인 등록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깐 비밀번호는 뭔지 모르는데 수강 신청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해답은 못 찾겠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요. ...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능력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최소한 길을 돌아서 가진 않을테니깐요. 학교가 이런 서비스를 꼭 제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후배들은 조금 낫겠죠.

그리고 기숙사의 경우 외국인 기숙사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교환학생이나 국비유학생에게 배정이 되고, 자비 또는 정규입학 유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찾아 살게 되는데 한국어 및 한국 문화가 서툰 유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거주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정희(2008)의 연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수업 특성과 같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와 정보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인 유학생들은 수업 보고서를 작성할 때 A4 용지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어 괴로워하고, “혼자 무조건 다 알아서” 해야 했다.

특히 정규입학 유학생들이 교환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교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느끼는 점은 정규입학 유학생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소속학과 또는 유학생 담당부서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교과 외 프로그램들도 교환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규입학 외국인 유학생들은 오랜 기간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만큼 더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해당 부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질문에 인터뷰 응답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었다.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주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라고 많이 답변하였다. 즉, 경험이나 사교의 목적보다는 실제 생활비의 조달이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집에서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할 여유가 되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하지 않는다고

주로 답하였다. 즉, 이미 학업의 부담이 큰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도 하고 싶기는 하지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면접자의 한국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 중국인 유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직원들에 대한 요구가 제일 엄격한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만약에 스스로 조절을 잘 못하면 일, 공부 두 가지다 망치게 되요. 그리고 여기서의 교육방식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랑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은 시험위주의 교육이라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두 가지다 할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흔히 중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어 과외나 번역도 있지만 음식점, 술집, 관리인, 관광 가이드 등 좀 더 육체적으로 고된 종류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소수 학생은 인턴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VI. 결론: 시사점 및 제언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시사점

다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 즉 유학대상 국가 및 대학의 선택, 학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 측면에 대한 4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5장의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유학대상 국가 및 대학의 선택

(1) 유학대상 국가로서 한국의 선택

설문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을 유학대상 국가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어 학습과 그 다음으로 한국문화의 체험이고, 또한 졸업 후 자국이나 외국에서 좀 더 나은 취업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또한 장학금 기회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과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 체험과 외국에서 휴식을 즐기고자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던 반면,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대학 졸업 후 고국에서 좋은 취직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저렴한 생활비와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수월한 비자절차가 중요한 이유였던 반면, 단기 과정 유학생들에게는 지리적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고, 학부 과정 유학생들에게는 수월한 비자절차가 중요하였다. 한국의 안전 즉 치안은 아시아권 학생과 학부생이 모두 중요한 이유라고 밝힌 부분이다. 장학금 기회는 대학원생과 기타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게 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조언은 한국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과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위 과정의 종류에 따라 이들이 한국이 유학 목적지로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적으로 친숙하며 유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 등이 한국으로 유학온 중요한 이유들이었다. 특히 일본에 비해 비자 받기가 수월하고 일본어나 영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여 한국으로 유학하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들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양한 이유가 언급되었으나, 대체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지역 출신 및 학부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이유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또 그 중 과반수가 학부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데(<표 4> 참조),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모두에서 저렴한 비용,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수월한 비자 절차 등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아 지역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졸업 후 고국에서 보다 나은 취직 기회를 갖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점이 중요했던 반면,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과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 체험과 외국에서 휴식을 즐기고자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 관리에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을 유학 국가로 추천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의 목적이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대답하면서도, 한국 대학의 교육의 질과 한국 학생의 학습태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유학비용이 생각보다 적지 않고 영어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영어권 국가로 유학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다. 설문조사에서 한국어 학습이 외국인 유학생이 전반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영어강의를 위

와 같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 국제화를 위해 영어 강의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목적과 효과를 재차 고려하게 한다. 하지만 영어 강의를 필요로 하고 이에 만족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으므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강의를 어떠한 학위 과정과 전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또 출신지역과 필요 등 어떠한 외국인 유학생을 목표로 삼고 운영할 것인지를 확실히 되짚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 대학 기관의 선택

설문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고려대학교 재학생을 통해서거나 인터넷과 안내책자와 같은 광고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로는 영어 강의, 보다 나은 고등교육의 질 그리고 재정지원 약속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의 유학생들에게 영어강의는 다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 또한 다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교사 및 진학상담가의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한국에서 어느 대학으로 갈 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여겼다. 북미 및 유럽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어느 대학으로 오든지 상관없었다고 한 대답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둘째,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은 영어 강의를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고 한국의 어느 대학으로 가든 한국으로 유학오기를 원했지만, 정규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의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의 질 등이 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다.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에게는 특정 교수나 연구진과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갖거나 수업을 듣는 것과 저렴한 교육비가 중요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어학원 즉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의 경험과 학교 시설 등을 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학습 분위기와 교육과정의 질 그리고 선후배 관계 등을 학교 명성과 국제화와 함께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강의를 개설할 때는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인 교육 프로그램의 양질화를 꾀하며 어학 및 단기 과정에서 그 학교만의 문화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학문적 경험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적 경험은 설문조사 결과, 유학 생활에서 사회 생활과 개인적 감정과 같은 어려움들에 비하여 어려움을 더욱 느끼는 부분이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학문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어려움의 정도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러 항목에 걸쳐 학문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도서관과 컴퓨터와 같은 학습관련 자료와 연구 시설 그리고 교수 및 강사의 질 등이 포함되었다. 학문적 어려움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그 중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습관련 자료와 지원 서비스 그리고 교수 및 강사의 질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과 교육비 그리고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북미 및 유럽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은 교육비와 장학금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편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로는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육비와 장학금, 학습지원 서비스, 교수 그리고 교직원의 도움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대체로 낮게 표한 반면,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은 교수와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단기 교환 및 연수 유학생들은 북미 및 유럽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과 함께 교직원의 영어 구사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

있고, 재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 및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

즉,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 시설이나 강의에 관한 만족도는 높지만 재정적 문제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로부터의 지원과 서비스 면에서는 어려움을 다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보다 좀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과는 대조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재학하며 능력이 향상된 면에 대하여 조사한 부분에서는 다른 문화와 민족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향상되었고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또는 교과 지식과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고국에서의 장래 직업 또는 앞으로의 학업 성취 및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매우 높았다.

중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학문적 경험에 있어 한국어와 영어 강의와 관련된 언어 문제, 학업 경쟁과 성적 스트레스,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시스템 및 시설을 이용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어라는 외국어로 수업을 듣고 학문을 위한 한국어를 사용해야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겪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 영어 강의를 듣는 것도 어렵고 한국 학생과의 경쟁에서도 또 뒤쳐질 수 있다는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과 정부에서 영어 강의를 장려하는 이유는 대학의 국제화 즉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한국 학생의 국제화 및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어려워하고 한국에서 영어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영어권으로 유학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목적과 수업 및 수강의 대상에 대해 숙고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과의 경쟁에서 실력 차이와 거리감을 느껴 힘들어하고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편견을 받고 중국에서 대학 이전에 배운 교과과정의 차이로 인해 한국 학생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기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토론 및 발표 중심의 수업 방식은 긍정적으로 여겼지만 교수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배려의 부족에 대해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배려해주지 않거나 편견 및 비하 발언을 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성적을 불리하게 준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다. 특히 지도교수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을 신경쓰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특히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면에 있어서도 단기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개의 외국어로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에 따른 이중의 어려움이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하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원으로는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학습 지원과 국내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교과 과정을 보충해줄 수 있는 튜터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교수가 강의와 성적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은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교수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3) 사회적 경험

(1) 사회적 경험의 만족도와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적 경험의 만족도

에 대하여 전반적인 대학에서의 경험과 친구 및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사교 분위기 등에 가장 만족한 편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일할 기회에 대해서는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보다 그리고 단기과정보다는 정규학위과정의 학생들이 사회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에 비하여 전반적 대학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 편이었고, 정규 학위 과정보다는 단기과정의 유학생들이 사교 분위기와 정규교과 외 활동에 대해 만족한 편이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 정규학위과정의 학생들이 사회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 교우관계 결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한국 학생과 사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와 학부과정의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첫 번째는 단기 방문 외국인 유학생, 즉 그들에게 제공하는 학교와 한국학생들의 지원 프로그램들과 관심, 다음으로는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즉 이들은 대학원이라는 학문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교하여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한국어 의사소통과 한국 학생과 친구 사귀는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학위 과정별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단기 과정의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의 편안함, 학교 캠퍼스에서 환영받는 느낌 그리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사귀는 부분 등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외국인 유학생과 그 중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 안팎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의 경험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2) 교우관계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설문조사 결

과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교우관계 비중은 가장 높은 반면 한국 학생의 비율은 가장 낮고, 한국 학생과 친구 사귀기를 가장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 학생과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힌 부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경, 2009; Brown, 2009; Campbell & Li, 2008).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관계는 고국의 가족 및 친구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학교에 있는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었다.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우관계에 있어 한국 학생과는 친구가 되고 싶어도 거리감을 느끼고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과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원하지만 이를 어려워 한다는 부분은 영국과 호주와 같은 주요 유학생 유치 국가인 서구 영어권 나라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Dunne, 2009; Peacock & Harrison, 2009; Volet & Ang, 1998; Ward, 2001). 이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본 사례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한국 학생들이 주도하는 도우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기 체류하는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규학생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전재은 외, 2011).

그러나 한국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을 어려워하는 태도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생의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 다음으로 중국인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멀게 느끼고 있었다(임도경·김창숙, 2011). 저자들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오랫동안 정치적 반대진영 국가였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는 편견 등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인 모두가 한국 다문화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국내 대학 사회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과의 단절된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게끔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 학생들이 다른 서구 혹은 일본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을 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유독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한 점은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보다 일본인이나 서양인에게 더 큰 호감을 보인다는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김영경, 2009; 임성택, 2003; 노경란 외, 2008). 캠퍼스 내에서 한국 학생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러한 이중 차별적인 태도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심각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중국과 중국인에 대하여 낙후되거나 더럽고 시끄럽다는 편견을 갖고 있고 오로지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목적을 위한 관계만을 원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3) 차별과 편견

외국인 유학생들 대부분이 차별 문제에 관한 설문응답에서 다양한 상대(동료학생, 교수, 행정직원)에 의해 그리고 학교 안팎에서 한국 학생 또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 학생과 비교하여서는 특히 학교에서보다 학교 밖에서 차별 받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고 이들을 차별하는 대상 가운데서는 동료 학생들에 의한 불공정한 대우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과의 인터뷰에서도 아르바이트 장소나 숙소를 구할 때 또는 지하철과 같은 학교 밖의 장소에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한 불쾌한 경험들을 이야기해준 부분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교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과 비교하여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

끼는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이도 20-33% 정도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같은 반 친구 학생들로부터 받은 차별 정도가 높은 점은 문제점으로 주목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도 동료 학생에 의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학교 밖에서 차별 경험을 겪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 또는 서구권에서 온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이전의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김영경(2009)은 한국인들이 일본 유학생에게는 호감을 표현하고 호의적이거나, 중국 유학생은 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황미애(2009)의 경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민족·출신국의 경제력 등으로 정해지는 신분 위계구조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낮은 위계구조에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도 높고 사회적 거리감도 멀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 차별 또는 무시를 당한 경우 그 원인이 한국어 능력 또는 국적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른 이유들 즉, 외국어 능력, 성별, 종교 또는 성적 기호와 같은 이유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동아시아 즉 중국인 유학생과 학부생 그리고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은 차별 경험을 이야기할 때 숙소를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장소, 지하철 등에서 겪은 이야기 등을 많이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수업에서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중국 혹은 중국인에 대해 비하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언급된 점이다. 이는 교수자가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을 가르칠 때 특정 국가를 폄하하는 발언을 삼가해야하는 인식과 함께 이러한 다른 문화

에 대한 태도 자체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이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수업 시간에 교수가 일본 학생이 있는 수업에서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여 학생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보면 한 중국인 유학생이 인터뷰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교수자가 개인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을 대표하여 일방적으로 비난 받게 하는 부분은 교육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교수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라 대학 수강생 인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이와는 상관없이도 대학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육의 질 즉 교수의 강의 능력이나 친절도에 만족감을 표하였는데 위와 같은 교수자의 유학생에 대한 차별언행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수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차별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교수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높은 학생동기를 가지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정은이 · 박용한, 2008; 송종호 · 이경탁, 2011), 이와 같은 교수들의 차별적 태도가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성취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아직 한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학생들과 한 수업에서 가르친다는 상황이 아직 생소한 환경에서 교수들은 이를 위한 교수법과 교실 내 가능한 갈등상황에 적절한 대응방법 등이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수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연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교육은 한국인 교수 뿐 아니

라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 교수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한국 학생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들은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을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보다, 한국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의 아니게 차별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생활적인 면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치안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반면 숙소 구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 치안 문제는 특히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이 만족감을 표한 부분이었지만,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은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과정의 유학생들은 숙소와 생활시설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다.

인터뷰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지원에서부터 각종 서류 등록 및 행정적인 업무의 처리, 수강신청, 보험 등의 서비스 이용 등에서 시스템 차이에 따른 어려움과 학교의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숙소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언급되었는데, 학교의 기숙사는 교환학생이나 국비유학생에게 배정되고 학교 밖에서 숙소를 구해야 하지만 한국어나 한국 생활이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개 생활비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였고 일부는 학업과 병행하기가 어렵거나 학업 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르바이트는 중국어 과외를 비롯해 음식점과 관리인과 같은 단순 노동 작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경험 결과부분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생활면에서도 다른 학위과정의 유학생들보다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에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과 고국 보다는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았지만,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은 취업을 하겠다는 대답보다 낮은 분포의 비율을 보였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 이후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고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한국 유학을 선택할 때 한국에서 혹은 고국으로 돌아가 보다 나은 취직 기회를 갖고자 한다는 응답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학업적 경험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고국에서의 장래 취업이나 앞으로의 학업 성취와 진학에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래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경험, 즉 한국 유학 결정 동기, 대학의 선택, 그리고 학문적 경험과 여러 사회적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동기는 출신 지역과 학위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미 및 유럽 지역 학생들과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 체험과 외국에서의 휴식이라는 이유가 한국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체험 및 한국 관광을 결부시

킨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가 유치 전략으로 주효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중 과반수가 학부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수월한 비자 절차가 한국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체감하는 비용은 저렴하지 않다고 밝혀 장학금, 기숙사와 같은 방안 외에도 교내 아르바이트 및 관련 인턴십 기회의 제공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안내 등 외국인 유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전반적으로 한국 유학 후 고국이나 외국에서 좀 더 나은 취직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한국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고 아시아 지역의 학생은 특히 졸업 후 고국에서의 좋은 취직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취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홍보와 개발 그리고 인턴십 기회의 제공 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은 교사나 진학상담가의 충고가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대학 입학 전 대학 부설의 한국어 학습기관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대학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대학 문화를 체험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한 가지 유치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영어 강의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은 한국 유학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고, 영어 강의는 대학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과 학위 과정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영어강의를 대학 선택 시 선호하였던 유학생들은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유학생이었고, 동아시아 지역 유학생들, 즉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 대신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의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과 교육의 질이 대학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오히려 중국인 학부 유학생은 한국어 강의뿐만 아니라 영어 강의를 들어야하는 스트레스를 겪고 한국어로 배우고 싶어 유학왔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강조하니 차라리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국을 거쳐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로 유학 가고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영어 강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대학의 영어 강의의 대상과 목표를 차별화하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 교환 및 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과 함께 영어로 진행되는 일반 대학 수업을 제공하고, 정규 학위과정의 학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목적과 필요 그리고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강의를 함께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학문적 한국어와 영어 학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영어 강의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국내 대학들이 한국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통해 대학 국제화를 꾀하고자 하는 부분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어학원 과정 이수 이후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한국어 학습을 계속할 수 있고 특히 한국어로 학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강의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학부 과정의 학생들의 학문적 경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관리가 시급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습 관련 시설과 교육의 질 등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유독 학부 과정의 유학생들이 학문적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도를 낮게 응답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교육비와 장학금 이외에도 한국어 및 영어 강의의 어려움, 학습 지원 서비스의 부족, 학교 시스템과 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교수의 편견 또는 무관심, 그리고 한국 학생과의 학업 경쟁과 성적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시스템 및 시설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홍보를 강화하고, 신입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강신청을 돕고 맞춤형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입학 때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 지원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와 영어 학습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교과과정을 보충해줄 수 있는 강의 및 튜터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하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교류를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이 교환 학생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과 정규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회적 경험의 어려움을 북미 및 유럽지역이나 단기 과정의 유학생들보다 더욱 느끼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학생과의 관계는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참여와 학업에도 기여할 수 있고(Hendrickson, Rosen, & Aune, 2011; Kashima & Loh, 2006; Pritchard & Skinner, 2002; Trice, 2004), 대학에서 동료 학생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가치관, 지적능력, 학업과 같은 영역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관계 형성은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의 문화적 능력과 학습 능력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강의, 학교 시설 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차별과 편견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수자가 교실에서 특정 국가 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와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 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유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학생들과 한 수업에서 가르친다는 상황이 아직 생소하므로 이를 위한 교수법과 교실 내 가능한 갈등상황에 적절한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교수자에게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류 및 이문화 능력의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수업의 방식도 될 수 있고 기존의 도우미 형식의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확장시키고 학생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들은 성공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양적 팽창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양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 기관의 외국인 유치 노력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한국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한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도 학업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며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도 차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질적 성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화 · 김아영 · 김대현(200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21(3), 65-88.
- 경수영 · 장수미(2010).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399-421.
- 고려대학교 국제처. (2010). 국제처 지표관리. 고려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2006). 2006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_____ (2007). 2007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_____ (2008a).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_____ (2008b). 2008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_____ (2009). 2009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_____ (2010).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_____ (2011a).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단 선정 결과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478호.
_____ (2011b).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429호.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_____ (2004). 2004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_____ (2005). 2005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권양이(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4(1), 301-333.
- 김대현 · 김아영 · 강이화(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3), 159-187.
- 김민선 · 석분옥 · 박금란 · 서영석(2010).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신체화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25-745.

- 김선남(2007a).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46.
- 김선남(2007b).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치정보연구, 10(1), 185-206.
- 김선정 · 허용 · 박동호(2006). 외국학생 한국 언어 · 문화 연수 활성화 방안: 유학생 유치 문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1), 1-17.
- 김수아 · 김태호(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 지각과 차별대처방식. 다문화교육연구, 4(1), 1-17.
- 김영경(2009). 중국 ·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김우중(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Trade Focus, 10(1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김태자 · 민지은 · 이상호(200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3, 1-17.
- 김홍렬(2011). 여가활동 동기, 제약, 만족 및 대학생활만족 비교 연구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5(2), 89-104.
- 나동석 · 강석화(2010). 연구논문 :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7), 21-46.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노경란 · 방희정(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 박기영(2008).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목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단락 쓰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4(3), 103-126.
- 박우(2009). 재한 중국 유학생의 이주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재외한국인연구, 19, 155-181.

- 박은미 · 황병의 · 정태연(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23.
- 박혜숙(2009). 지역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
치는 관련 변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4, 91-116. 호남대학교 인문
사회과학연구소.
- 박혜숙(2010). 국내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교
육과학연구, 41(3), 1-27.
- 배현숙(200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
와 문화, 3(1), 107-120.
- 송원영 · 리난(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송종호 · 이경탁(2011). 교수의 신뢰성과 매력성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논집, 19(2), 79-96.
- 안영진(2009).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12(4), 344-363.
- 이병식(2005). 한국 고등교육 체제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2005-7
- 이수범 · 김동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47-79.
- 이수상 · 위성광(2007). 중국 유학생의 대학도서관 포털 서비스 만족도에 관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113-134.
- 이익수 · 지봉구(2006).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
연구, 29(5), 437-454.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이현실 · 황동렬(2007).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45-165.
- 이해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18(1),
279-301.
- 임도경 · 김창숙(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

- 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1), 5-34.
- 임성택(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한국교육학회, 41(3), 275-301.
- 임지혜·최정화(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미디어 영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9(5), 405-420.
- 임춘희(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장귀경·홍성현·문석환(2010). 중국인 유학생 유치활성화를 위한 대학 교육서비스품질 개선 방안. 의사결정학연구, 18(1), 21-40.
- 전북대학교(2009).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종합계획.
- 전재은·이희영·장나영(2011). 중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연구, 4(1), 27-56.
- 정은이(2008).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과의 진로관련 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진로교육연구, 22, 109-131.
- 정은이·박용한(2008).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9(1), 73-93.
- 조용완·이수상(201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75-99.
- 조창환·성윤희(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언론학보, 54(4), 374-397.
- 조혁수·전경태(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193-22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주현준(2007).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요구 분석. 교육학연구, 45(3), 83-106.
- 주휘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채재은(2010).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 Polices. 비교교육연구, 20(3), 1-26.
- 최상덕 · 최현영(2009). 아시아 대학생 이동 프로그램 Campus Asia 설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2009-07.
- 최운곤(200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한국어문학연구, 41, 115-138.
- 최정운(2009).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평론, 243-267. 한국교육개발원. OR 2009-6.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황미애(2009).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 연구. 시민교육연구, 41(3), 205-226.
- Brown, L. (2009). A failure of communication on the cross-cultural campu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4), 439-454.
- Byun, K., Chu, H., Kim, M., Park, I., Kim, S., & Jung, J. (2011). English-medium teaching in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debates and reality. *Higher Education*, 62:431-449. doi 10.1007/s10734-010-9397-4.
- Byun, K., & Kim, M. (2010). Shifting patterns of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doi: 10.1177/1028315310375307.
- Campbell, J., & Li, M. (2008). Asian students' voices: An empirical study of Asian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at a New Zealand Univers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4), 375-396.
- Cantwell, B., Luca, S. G., & Lee, J. J.(2009). Exploring the orienta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Mexico: Differences by region of origin. *Higher Education*, 57, 335-354.
- Creswell, J.W. & Plano Clark, V.L.(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unne, C. (2009). Host students' perspectives of intercultural contact in an Irish

univers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2), 222–239.

G

Hendrickson, B., Rosen, D., & Aune, R. K. (2011). An analysis of friendship networks, social connectedness, homesickness, and satisfaction level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281–295.

Jon, J.-E. (2009). 'Interculturality' in higher education as student intercultural learning and development: A case study in South Korea. *Intercultural Education*, 20(5), 439 - 449.

Jon, J.-E. & Kim, E.-Y. (2011). What it takes to internationalize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English-mediated cours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J. D. Palmer, A. C. Roberts, Y. H. Cho, & G. Ching (Eds.), *Globalization's influence up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ast Asian higher institut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Kashima, E. S., & Loh, E. (2006).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Effects of international, conational, and local ties and need for cl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4), 471 - 485.

Nesdale, D. & Todd, P. (2000). Effect of contact on intercultural acceptance: a fiel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3), 341 - 360.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Paris: OECD.

Paige, R. M. (1983). Cultures in contact: On intercultural relations among American and foreig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context. In D. Landis & R. W. Brislin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Vol. 3, pp. 102 - 129). New York: Pergamon.

Pascarella, E. & Terenzini, P.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Peacock, N. & Harrison, N. (2009). "It's so much easier to go with what's easy": "Mindfulness" and the discourse between home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4), 487–508.
- Pritchard, R. M. O. & Skinner, B. (2002). Cross-cultural partnerships between home and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6(4), 323 – 353.
- Trice, A. G. (2004). Mixing it up: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social interactions with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6), 671 – 681.
- Volet, S. E. & Ang, G. (1998). Culturally mixed groups on international campuses: An opportunity for inter-cultural learning.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17(1), 5 – 23.
- Ward, C. (2001).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on domestic students and host institutions: A literature review. Prepared for the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부록 1>

설문지(영문)

Korea University –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Welcome!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at Korea University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it.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the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HEPRI) at Korea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 Korea University.

This is the first comprehensive survey on international students at Korea University.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ill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s and address the needs of current and futur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You have been invited to participate because you were identified as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was attending Korea University in Fall 2010. Your identification will be strictly anonymous. Absolutely no attempt will be made to link your identity to your responses. All answers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and your participation is voluntary. Your withdrawal at any time will not affect your relationship with Korea University.

This survey will take approximately 20 minutes to complet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name) at (email address).

Thank you for your valuable participation!

CHOOSING KU

1. Did you apply (or consider applying) to a school in another foreign country (not Korea or your home country)?

- ☐ Yes
☐ No

2. What country(ies)?

3. Was Korea University your first choice institution when applying abroad?

- ☐ Yes
☐ No

4. Please list the name of your first choice.

5. To what extent did you rely on the following sources of information in choosing Korea University (KU)?

	Not at all	A little	A fair amount	A lot
(1) Study abroad or international education office at my home univers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Contract agreement with a university in my home country (exchange agreement between institution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Friends who have studied abroa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Family members who have studied abroa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Internet/brochures/advertisements (TV, newspaper)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Recruiters (e.g. recruiting events, exhibi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Counselor/ teacher in high school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Professors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 | | | |
|---|-----------------------|-----------------------|-----------------------|-----------------------|
| (9) Professors at my previous university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0) Students who attended KU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1) Study abroad agency in my home country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2) Other _____ | | | | |

6. When choosing to study in Korea, how important was each of the personal reasons listed below

- | | Not
important | Somewhat
important | Very
important | Most
important |
|--|-----------------------|-----------------------|-----------------------|-----------------------|
| (1) Better job opportunities in my home country with academic experience abroad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 Better job opportunities outside my home country with academic experience abroad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4) To learn and practice the Korean languag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5) Vacation away from hom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6) Opportunity to academic research about Korea (e.g. Korean studie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7) My teacher/counselor advised me to study in Korea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8) I have family in Korea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9) I have friends in Korea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0) I wanted to get in-touch with my Korean heritag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1) Other _____ | | | | |

7. When choosing to study in Korea, how important was each of the reasons about Korea listed below?

	Not important	Somewhat important	Very important	Most important
(1) Korea is geographically close to my home count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Korea's easier visa and application procedur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 considere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Lower cost of liv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 considere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Korea is saf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 considere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Opportunity to work while at school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Scholarship opportun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Other _____				

8. When choosing Korea University (KU), how important was each reason below?

	Not important	Somewhat important	Very important	Most important
(1) Academic program/major not available in my home count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Ethnic/cultural diversity of campu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I was offered financial assistanc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Opportunity to study/research with a particular faculty member or research group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Courses taught in English offered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I just wanted to study in Korea (the campus or university didn't matter)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Not accepted to my first choic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 | | | |
|--|-----------------------|-----------------------|-----------------------|-----------------------|
| (8) My teacher/counselor advised me to study at KU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9) I was interested in a specific educational program at KU (academic and/or extracurricular program)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0) Better quality of higher education compared to my home country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1) Educational cost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in Korea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2) Other _____ | | | | |

9. For (9) in the question above, what program were you interested in at Korea University? (if applicable)

ACADEMIC/COMMUNITY/ PERSONAL

10. During your stay at Korea University, please rate the level of difficulty that you have experienced for each category

- | | 1
(Least
difficult) | 2 | 3 | 4 | 5
(Most
difficult) | Does
not
apply |
|---|---------------------------|-----------------------|-----------------------|-----------------------|--------------------------|-----------------------|
| (1) Academic lif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 Social life (e.g. relationships with friends, professor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 Personal life (e.g. feeling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Please explain: _____

11. Please indicate your satisfaction with Korea University in each below on a scale from 1 to 5 (Part 1)

	1 (Least difficult)	2	3	4	5 (Most difficult)	Does not apply
(1) Academic resources (library, computers, etc.)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Academic support servic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Educational cost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English speaking ability of staff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Extra-curricular opportunities and activiti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Faculty advisors (professor)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Helpfulness of administrators and staff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Job preparedness for work after studying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Obtaining housing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Off-campus work opportuniti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Quality/comfort of living faciliti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lease comment : _____

12. Please indicate your satisfaction with Korea University in each below on a scale from 1 to 5 (Part 2)

	1 (Least difficult)	2	3	4	5 (Most difficult)	Does not apply
(1) On-campus work opportuniti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Personal/Family safe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Quality of health and family support services (e.g. child car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Quality of university facilities (e.g. library, gym)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Scholarships/Grants/Other financial ai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Scientific research / laboratory equipment (labs, technology, etc.)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 | | | | | |
|---|-----------------------|-----------------------|-----------------------|-----------------------|-----------------------|-----------------------|
| (7) Social atmosphere (friends, activitie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8) Transferring courses from other universities for KU academic credit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9) Quality of teaching staff (professors and instructor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0) English speaking ability of faculty (professor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1) Course availability in English languag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2) Overall college experienc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Please comment : _____

13. Please rate the following experiences at Korea University (KU) on a scale from 1 to 5 (1=no difficulty to 5=much difficulty)

- | | 1
(Least
difficult) | 2 | 3 | 4 | 5
(Most
difficult) |
|---|---------------------------|-----------------------|-----------------------|-----------------------|--------------------------|
| (1) Acceptance by KU faculty and staff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 Acceptance by KU student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 Advice and information given by KU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4) Affordability of living (rent, food, transportation, etc.)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5) Affordability of education (tuition, supplies, etc.)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6) Availability of financial assistanc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7) Availability of support service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8) Feeling comfortable in Korea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9) Feeling welcomed on KU campu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0) Communicating in the Korean language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1) Making friends with Korean student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2) Making friend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3) Making friends with students from home countries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4) Academic pressure to succeed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4. Please indicate the backgrounds of your friends at Korea University.

- ☐ Mostly students from my home country
- ☐ Mostly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 ☐ Mostly Korean students
- ☐ No friends at KU
- ☐ Other

15. Who do you want to make friends MOST with at Korea University?

- ☐ Students from my home country
- ☐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 ☐ Korean students
- ☐ Other

16. How much support do you receive from each of the following: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A lot
(1) Friends from home country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Korean students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Faculty and staff at KU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Family and friends back in my home count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Other (Please explain) _____				

DISCRIMINATION

17. Do you believe that you are treated fairly as compared to Korean students?

	Yes	No
(1) By classmat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By professor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By administrative staff on campu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Outside the classroom, but within the univers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Outside the univers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lease provide examples _____

18. Do you believe that you are treated fairly as compared to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Yes	No
(1) By classmat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By professor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By administrative staff on campu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Outside the classroom, but within the univers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Outside the univers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lease provide examples _____

19. Do you feel accepted and comfortable in Korea?

☐ Yes

☐ No

Please explain _____

20. Have you been treated disrespectfully or unfairly in Korea due to any of the following?

	Yes	No
(1) Gender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Korean language abil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National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Rac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Religio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English language abil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Sexual orientatio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lease provide examples _____

LEARNING OUTCOMES

21. Compared to when you first started at this institution, how would you now describe your :

	Much weaker	Weaker	No change	Stronger	Much stronger
(1) Ability to get along with people of different races/cultures/ethniciti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Ability to work cooperativel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Analytical and problem-solving skill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Computer skill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Korean language abil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English language abil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General knowledg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Knowledge of a particular field or disciplin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Ability to understan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ethniciti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Mathematical skill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Public speaking abil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Research skill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Academic writing skill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 In your own words, please describe how your experience at Korea University may have impacted on your life

23. Do you believe that what you have learned at Korea University will be useful to your work in your home country?

- ☐ Yes
☐ No

24. Why or why not?

25. Do you believe that what you have learned at Korea University will be useful to your future education?

☐ Yes

☐ No

26. Why or why not?

FUTURE PLAN

27. Please indicate your future goals for EDUCATION

	Yes	No
(1) Hope to further education in Korea beyond current program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Hope to further education in home count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Hope to further education in another count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lease specify the names of country (if applicable)

28. Please indicate your future goals for CAREER

	Yes	No
(1) Hope to pursue a career in Korea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Hope to pursue a career in home count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Hope to pursue a career in another count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lease specify the names of country (if applicable)

RECOMMENDATION

29. Would you recommend Korea University to friends/family in your home country?

- ☐ Yes
- ☐ No

30. Why or why not?

31. What recommendations do you have to Korea University to improve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BACKGROUND

32. When do you speak Korean? (Check all that apply)

- ☐ In the classroom
- ☐ Outside the classroom
- ☐ None

33. In what language did you select courses taught?

- ☐ Entirely Korean
- ☐ Mixed Korean and English
- ☐ Entirely English
- ☐ Other

Please specify _____

34. What do you think is your level of Korean?

- ☐ Only a few phrases
- ☐ Read, write and speak basic Korean
- ☐ Read, write and speak advanced Korean

35. What do you think is your level of English?

- ☐ Only a few phrases
- ☐ Read, write and speak basic Korean
- ☐ Read, write and speak advanced Korean

36. Gender:

- ☐ female
- ☐ male

37. Ethnicity/Race

38. Primary Language

39. Countries of Citizenship

40. Name of a city you are from (prior to Korea)

41. Are you employed? (Check all that apply)

- ☐ Not currently employed
- ☐ Working on campus
- ☐ Working off campus

42. What is the job?

43. Please indicate the number of hours working per week:

44. Is the job related to your future career goals?

☐ Yes

☐ No

45. Please add any comments about your job(s)

46. How many semesters have you attended at Korea University (including the 1st semester 2011)

47. Your first major (primary academic department) at Korea University

48. Your second major or minor at Korea University (if applicable)

49. How many English-taught courses did you take at Korea University?

50. In what type of degree program are you enrolled at Korea University?

- ☐ No degree program (short-term exchange student)
- ☐ No degree program (Korean language program)
- ☐ BA/BS or equivalent
- ☐ MA/MS or equivalent
- ☐ Ph.D
- ☐ Other

Please explain (if applicable)

51. Do you have your family members, partners, or close friends from your home country (not including students) in Korea?

- ☐ Yes
- ☐ No

52. Your father's highest level of education:

- ☐ Primary school
- ☐ Secondary school
- ☐ High school degree
- ☐ Some college
- ☐ 4 year college degree (or equivalent)
- ☐ Graduate degree

53. Your mother's highest level of education:

- ☐ Primary school
- ☐ Secondary school
- ☐ High school degree
- ☐ Some college
- ☐ 4 year college degree (or equivalent)
- ☐ Graduate degree

54. Have you studied abroad in countries except Korea and your home country?

- ☐ Yes
- ☐ No

55. Which countries? Please list all.

56. How many months in total (combining all countries)?

57. Please add any comments you wish to share.

58.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n a confidential interview to further discuss your experiences?

☐ Yes

☐ No

59. (If yes) Please provide your email and/or phone number to contact you for interviews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부록 2>

설문지(중문)

Korea University –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欢迎！

欢迎参加高丽大学国际学生问卷调查，感谢您的参与！此次问卷调查在高丽大学高等教育政策研究所(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的主导之下，与高丽大学国际处(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共同合作进行。

这是对高丽大学国际学生第一次进行的全面性调查。收集的数据将会帮助研究机关加深对国际学生海外学习经验的理解，并有利于有关部门了解国际学生的需求提供准确的信息。

问卷调查的对象限于2010年秋季学期在高丽大学本科就读的国际学生。参与者的身份将会得到充分的保护，我们不会试图通过参与者的应答来了解其真实身份。参与者的应答内容将会得到严格的保密。参与是自愿的，参与与否并不会影响参与者在高丽大学的学习。

此问卷大概需要20分钟。如有任何问题，请通过(email) 与(name)联系。

感谢您的参与。

选择高丽大学

1. 除了韩国的大学和出身国家的大学以外，您是否申请过或者考虑过申请其他国家的大学？

- ☐ 是
☐ 否

2. 如有过，请写出国家名。_____

3. 考虑出国留学的时候，高丽大学是您的首选大学吗？

- ☐ 是
☐ 否

4. 如果不是，请告诉我们您的首选大学。_____

5. 当申请高丽大学的时候，您依赖以下信息的程度？

	根本 不是	有些	相当	很多
(1)本国就读大学的海外留学办公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学校间的交换学生项目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在国外留学的朋友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在国外留学的亲人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互联网/小册子/广告 (TV,新闻)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海外招生办公室 (留学说明会, 留学博览会)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高中的咨询老师/老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高丽大学的教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本国就读大学的教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在高丽大学就读的学生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本国的留学中介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其他 _____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选择来韩国留学的时候，下列理由（关于个人）的相对重要度是？

	一点也不 不重要	有点 重要	很重要	非常 重要
(1)回国工作时，海外留学经历提供更好的 工作机会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在国外工作时，海外留学经历提供更好的 工作机会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体验韩国文化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学习和练习韩国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远离家乡度假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把韩国当作研究对象的研究机会 (例：学习韩国学，韩国经济，韩国政治 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我的老师/咨询老师建议我去韩国留学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我有家人在韩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我有朋友在韩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作为侨胞，我想更近距离的体验韩国 传统文化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其他 _____				

7. 选择来韩国留学的时候，下列理由（关于韩国）的相对重要度是？

	一点也不 不重要	有点 重要	很重要	非常 重要
(1)韩国是邻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跟其他我考虑过留学的国家相比，申请 韩国签证的过程比较简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跟其他我考虑过留学的国家相比，韩国 的消费水平较低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跟其他我考虑过留学的国家相比，韩国 的治安比较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可以半工半读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奖学金制度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其他 _____				

8. 选择高丽大学的时候，下列理由的重要度是？

	一点也不重要	有点重要	很重要	非常重要
(1)本国没有的学术项目/专业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校园里的民族/文化多样性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我获得了奖学金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跟某一教授或研究小组共同进行学习或研究的机会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高丽大学的英文授课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我就是想来韩国留学（我不介意是什么学校或者学校坐落在哪儿）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没有被我的首选学校入取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我的老师/咨询老师向我推荐了高丽大学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我想读高丽大学的某一具体的专业/项目（学术和/或正规课程外的专业/项目）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与本国的大学相比，高丽大学拥有较高的教育水平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考虑到跟其他韩国大学相比的高丽大学学费水平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其他 _____				

9. 关于上一个问题的第九小题，你对高丽大学的哪个专业感兴趣？

学业 / 人际交往 / 个人生活

10. 在高丽大学留学期间，请把下面每一项的困难程度列出来

	1 (有点 困难)	2	3	4	5 (非常 困难)	无法 应答
(1)学习生活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社会生活 (例：跟同学和教授的关系)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个人生活 (例：情感)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请进一步说明: _____

11. 请从下面各项来说明对高丽大学的满意度 (Part 1)。

	1 (级度 不满)	2	3	4	5 (级度 满意)	无法 应答
(1)学术资源 (图书馆, 电脑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学术支援服务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学费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工作人员的英语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正规课程以外的机会和活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指导教授的支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工作人员的支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从高丽大学毕业之后的就业准备支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找房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校外打工机会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住宿条件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请进一步解释: _____

12. 请从下面各项来说明对高丽大学的满意度 (Part 2)。

	1 (级度 不满)	2	3	4	5 (级度 满意)	无法 应答
(1)校内打工机会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个人/家人的安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健康跟家族支援服务的质量 (例：保育)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学校设施 (例：.图书馆，健身房)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奖学金/拨款/其他财政支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科学研究/研究设备 (研究室，科学技术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社会氛围 (朋友，活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与其他学校的学分交流课程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教学水平 (教授和讲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教授的英语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英文授课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其他学校体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请进一步解释: _____

13. 请用1到5的尺度评出以下在高丽大学的个人经历的难易度。

	1 (不困難)	2	3	4	5 (很困難)
(1)被高丽大学的老师和工作人员接受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被高丽大学的学生接受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从高丽大学国际处得到留学生服务方面的 有关信息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付生活费 (租房，吃饭，交通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付学费 (学费，其他开支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申请奖学金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获得支援服务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适应韩国的生活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在校园里感觉自己是受欢迎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用韩语交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 | | | | |
|-----------|-----------------------|-----------------------|-----------------------|-----------------------|-----------------------|
| (11)交韩国朋友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2)交韩国朋友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3)交中国朋友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4)交中国朋友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4. 您在高丽大学的朋友都是哪些人？

- ☐绝大多数是中国人
- ☐绝大多数是国际学生
- ☐绝大多数是韩国学生
- ☐在高丽大学没有朋友
- ☐其他 _____

15. 在高丽大学你最想交哪些朋友？

- ☐中国学生
- ☐国际学生
- ☐韩国学生
- ☐其他 _____

16. 从下面的人群里您能获得多少支持：

- | | 根本
不是 | 有些 | 相当 | 很多 |
|------------------|-----------------------|-----------------------|-----------------------|-----------------------|
| (1)高丽大学的中国朋友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高丽大学的其他国际学生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高丽大学的韩国学生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4)高丽大学的教授和工作人员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5)在中国的家人和朋友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6)其他（请解释） _____ | | | | |

偏见

17. 您觉得自己跟韩国学生受到同等对待吗？

	是	否
(1)(被) 同学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被) 教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被) 校内的工作人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班级外的校内场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校外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请举一下例子 _____

18. 你觉得自己跟其他国际学生受到同等对待吗？

	是	否
(1)(被) 同学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被) 教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被) 校内的工作人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班级外的校内场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校外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请举一下例子 _____

19. 在高丽大学，您觉得自己是被接纳的并感觉自在吗？

☐是

☐否

请解释 _____

20. 因以下任何一项理由，你有没有在高丽大学受到过粗鲁的或者不公平的对待？

	是	否
(1)性别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韩国语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国籍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民族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宗教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英语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性取向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请解释 _____

学习成果

21. 跟刚来高丽大学的时候相比，您是如何定位现在的自己的？

	很弱	弱	没有 变化	较强	很强
(1)能够与来自不同种族/文化/民族的人相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合作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分析和解决问题的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电脑操作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韩国语水平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英语水平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一般常识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专业知识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能够理解来自不同文化/种族的人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数学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发表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研究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学术写作能力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 用自己的语言，请阐述高丽大学的求学经历对自己人生的影响

23.您在高丽大学所学的内容会对您回国工作帮助大吗？

- ☐ 是
☐ 否

24. 为什么是或者为什么不是？

25. 您觉得在高丽大学所学的内容会对您以后继续接受教育帮助大吗？

- ☐ 是
☐ 否

26. 为什么是或者为什么不是？

将来的计划

27. 请说一下您未来的教育目标

- | | 是 | 否 |
|--------------------------|-----------------------|-----------------------|
| (1) 希望继续在韩国学习现学专业以外的其他专业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 希望继续在韩国学习现学专业以外的其他专业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 希望在其他国家继续接受教育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希望在其他国家继续接受教育

28. 请说一下将来的职业目标

- | | 是 | 否 |
|--------------|-----------------------|-----------------------|
| (1) 想在韩国工作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 想回国工作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 想在其他国家工作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希望在其他国家继续接受教育

建议

29. 您建不建议让其他的中国学生来高丽大学读书？

- ☐ 是
- ☐ 否

30. 为什么是或者为什么不是？

31. . 您对高丽大学的留学生服务有哪些建议？

背景

32. 您什么时候说韩国语？（请标出所有的可能的情况）

- ☐ 在课堂上
- ☐ 在课堂以外
- ☐ 不说

33. 您选听哪种语言进行的课程？

- ☐ 全部用韩文进行的课程
- ☐ 即用到英文也用到韩文的课程
- ☐ 全部用英文进行的课程
- ☐ 其他

请解释一下 _____

34. 您的韩国语水平？

- ☐ 只能说简单的几个句子
- ☐ 能读，写和说基本的韩国语
- ☐ 能读，写和说高级的韩国语

35. 您的英文水平？

- ☐ 只能说简单的几个句子
- ☐ 能读，写和说基本的韩国语
- ☐ 能读，写和说高级的韩国语

36. 您的性别：

- ☐ 男
- ☐ 女

37. 民族

38. 第一语言

39. 国籍

40. 来韩国之前生活的所在地

41. 您工作吗？请选择所有符合的情况。

- ☐ 目前还没有工作
- ☐ 在学校工作
- ☐ 在校外工作

42. 是什么工作？

43. 一周工作几个小时？

44. 您现在的工作是否与您未来的职业目标相关？

- ☐ 是
☐ 否

45. 关于您的工作，请做一下任意的表述。

46. 您现在是第几学期？（把2011年第一学期也算在内的话）

47. 您的第一专业是什么？

48. 您的第二专业是什么？（如有的话）

49. 您到目前为止听了几门英讲课程？

50. 您的学位类型是？

- ☐ 无学位项目（短期交换学生）

- ☐ 无学位项目（韩国语语言研修）
- ☐ 学士学位（本科）
- ☐ 硕士学位（研究生）
- ☐ 博士学位（研究生）
- ☐ 其他

请解释（如有必要的话）

51. 您有家人，伴侣或好朋友在韩国吗？

- ☐ 是
- ☐ 否

52. 您爸爸的最高学历是:

- ☐ 小学
- ☐ 中学
- ☐ 高中
- ☐ 专科
- ☐ 4年制本科
- ☐ 硕士或硕士以上

53. 您妈妈的最高学历是：

- ☐ 小学
- ☐ 中学
- ☐ 高中
- ☐ 专科
- ☐ 4年制本科
- ☐ 硕士或硕士以上

54. 除了韩国，您是否在其他国家留学过？

- ☐ 是
- ☐ 否

55. 请写一下国家名（如有去过的话）。

--

56. 总共滞留的时间有多长（所有留学过的国家都加在一起）？

57. 请提出您对此次问卷调查的宝贵意见。

58. 您有没有意愿接受我们的采访来分享您更多的的留学生活？

☐是

☐否

59. 方便我们能够联系您，请告诉我们您的邮件地址或手机号。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부록 3>

인터뷰 질문지(영문)

Choosing to study abroad and coming to the KU (10 min)

- 1. How did you choose to study in Korea?**
- 2. What is the main reason you chose KU?**
 - a) Did the fact that KU offers many courses taught in English influenced your decision?
- 3. What were the major events/people that led to your decision?**
- 4. How easy or difficult was the process of applying and coming to KU?**
- 5. What are the best aspects of studying in KU?**
- 6. What recommendations would you make to encourage students to come to KU?**
 - a) Any recommendations to improve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t KU?
 - b) Is there anything you would change at KU if you could?
- 7. Do you intend to recommend studying in Korea to other peers at home country, why or why not?**
- 8. Do you intend to recommend KU to other peers at home, why or why not?**
- 9. What have been your greatest challenges since arriving at KU?**

Academic Life (15 min)

- 10. How are your classroom experiences at KU compared to your home country?**
 - a) Classroom teaching & learning style
 - b) Student– faculty relationship
 - c) Academic demands/ load/ expectations
- 11.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curriculum available in English at KU?**
 - a) Can you describe your experiences?
- 12. Do you feel that you are able to take courses taught in Korean language?**
 - a) How has that impacted your experience at KU?
- 13. Do you feel that university provides adequate language support for class?**

Social Life (15min)

- 14. Who are your friends at KU?**

Please tell me about your friends (general description, including who they are, where they are from, how they met, what they do together, talk about, and etc.):

 - a) Friends from home country
 - b) International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 c) Korean students
- 15. Who do you interact with the most among three groups of students?**
 - a) Who do you interact with the least among three groups of students?
- 16. What do your different groups of friends mean to your life in Korea?**

(In other words, what kind of role do you think they do for your life in Korea?)

 - a) Friends from home country
 - b) International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 c) Korean students

- 17. How do you feel about Korean students at KU generally?**
- 18. Could you share any episodes/ stories with your Korean friends at KU, if you have any?**
- 19. What do you hope to be improved about your friendship at KU?**
(For example, previous studies say that international students hope to make more friends with local students, Korean students in this case.)

Personal Experiences (20 min)

- 20. Do you think that international students feel welcomed and comfortable at KU?**
- a) Have you, or any one you know, been treated disrespectfully on campus?
 - b) Have you, or any one you know, been treated disrespectfully off-campus?
 - c) Any experiences/ stories that you can share with me?
 - d) (If had bad experiences) What do you think the reason of your bad experience was?
(If an interviewee hesitates to respond, provide options)
Because of racism/discrimination?
Or do you think it was due to difference in culture?

Learning Outcomes

- 21. What was the impact of your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t KU?**
- a) personal
 - b) academic
- 22.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share?**

<부록 4>

인터뷰 질문지(중문)

选择来高丽大学深造 (10分钟)

1. 你是怎么选择来韩国留学的？
2. 你选择高丽大学的主要理由是什么？
①比如说高丽大学提供很多英讲课程，这会不会对你选择高大起决定性作用？
3. 是什么样事件或者人影响你做出来韩国读书的决定？
4. 申请大学的过程对你来说难不难？
5. 在高丽大学学习的好处当中，如果只让你讲一项，你认为那会是什么？
6. 为了吸引更多的留学生，你对学校有哪些方面的建议？
① 对提高对国际学生的服务方面的建议
7. 你想不想让其他在中国的学生来韩国出国深造？理由是什么？
8. 你想不想让其他在中国的学生来高丽大学学习？理由是什么？
9. 来到高丽大学以后，你所经历过的最大的挑战是什么？

学习（15分钟）

1. 相比在中国的课堂教学经验，你觉得在高丽大学的课堂教学经验有哪些特点？

- ①讲课和学习风格方面
- ②师生关系
- ③学习负担，压力，期望

2. 你对高大的英语课程还满意吗？

- ①能不能阐述一下自己的经历？

3. 你觉得韩文授课对你来说有没有问题？

- ①韩文授课会不会影响你在高丽大学的生活？

4. 你觉得高丽大学有没有提供良好的语言服务？

生活

1. 你在高丽大学交友圈子是？

请介绍一下你在高丽大学的朋友（包括他们是谁？他们来自哪儿？怎么认识他们的？你们在一起都做些什么等等）

- ①老乡
- ②来自其他国家的留学生
- ③韩国学生

2. 跟你交流最多的是哪些朋友？

- ①跟你交流最少的是哪些朋友？

3. 这些来自不同地区的人对你在韩国的学习和生活意味着什么？

(换句话说，这些人是如何影响你在这里的生活的？)

- ①老乡
- ②来自其他国家的留学生
- ③韩国学生

4. 你怎么看高丽大学的学生？或者对他们的印象怎么样？
5. 你能不能与我们分享任何一段跟韩国朋友交流过程中发生的故事或插曲？
6. 你希望你的人际关系的哪些方面能得到改善？
(比如说，之前的研究表明留学生希望有更多的机会与当地学生交流)

个人经历

1. 你觉得留学生有没有被当地学生欢迎？
 - ①你或你周围中国学生在校园里有没有受到歧视的经历？
 - ②你或你周围的中国学生在校园以外的地方有没有受到歧视的经历？
 - ③请说一下任何可与我们分享的经历。
 - ④那些不堪的经历) 你认为发生那件事情的最主要的原因是什么？
(如果忌讳回答此问题，调查者可以提供几种选择)
种族主义或者偏见
或者文化差异

学习成果

1. 通过在高丽大学的深造，锻炼和成就了你的哪些方面的能力？
 - ①个人
 - ②学业
2. 你还有其他的问题吗？

- Ps:
1. 你打工吗？
 2. 你打工的目的是什么？
 3. 你的生活费跟学费的来源是哪里？
 4. 毕业之后有什么打算？是打算继续留在这里还是回国？

RR 2011-01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경험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발행일 2011년 10월

발행인 신 현 석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 (02) 3290-2658

팩스: (02) 3290-5325

<http://he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7221
